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동상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17. 11. 9.(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곽노봉, 김태영(덕문), 노혁진,
박은경, 박정혜, 배재호, 오용섭, 유창종, 이호열,
장경희, 진화수, 한경순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검토사항】 1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	공개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
3	묘법연화경 목판	"
4	고봉화상선요 목판	"
5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6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
7	묘법연화경 목판	"
8	계초심학인문 목판	"
9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
10	고봉화상선요 목판	"
11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12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13	제반문 목판	"
14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
15	오대진언 목판	"
【보고사항】 1건		
16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개선계획 보고	공개

검 토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6-001

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會圖)

가. 검토사항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재)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3.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2017년 제3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과학조사 보완사유로 보류됨. 이에 관계전문가 과학보완조사(’17.9.2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會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91×291.9cm, 화면 278×272.1cm
- 재 질 : 삼베바탕에 홍칠
- 형 식 : 선묘화
- 조성연대 : 1742년(영조 18)

○ 제 작 자 : 雷現, 密機, 碩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세로 278.0, 가로272.1cm 크기의 삼베 바탕에 주색을 칠한 뒤 백색선묘로 그린 전형적인 선묘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금선으로 그린 금니선묘불화는 고려후기에 아주 드물게 1사례(일본 尊體寺 소장)가 있으나, 삼베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조선 1562년 일본 소겐지(曹源寺) <석가설법도>, 1563년 일본 지후쿠지(持福寺) <석가설법도>, 1586년 일본 초안지(長安寺) <아미타오존도> 등을 들 수 있다. 왕실의 금선묘 불화에 대응해서 민중불화 확산의 일종인 삼베바탕 선묘 불화는 16세이후 18세기 불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게다가 보경사 작품은 조선후기 기년명 있는 비로자나불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이다. 수화승은 雷現을 비롯 密機, 碩岑 등 3인이 참여하였는데, 雷現은 그 외작화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화승이다. 그러나 密機는 1731~64년까지 경북 일대에서 활약한 화승으로 세관과 함께 활동한 경력을 가진 자로 주목된다. 또한 碩岑은 보경사 선묘불화 외에도 1764년에 아미타선묘불화 조성에 동참하였다.

결국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는 현존 상태가 양호하며,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 및 제작자가 뚜렷한 작품이다. 게다가 18~19세기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선묘불화이다. 또한 필선이 섬세하고 소형 문양들의 장식성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조선후기 비로자나불 도상 및 선묘불화 연구에 귀중한 사례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보경사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나불도>는 조성시 가 1742년으로 분명하고 수화승 ‘雷現’을 위시하여 ‘密機’와 ‘碩岑’ 등 3인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하였음을 또한 확인되었다.

특히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수화승 ‘뇌현’의 유일한 대표작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온 ‘밀기’가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삼베바탕에 붉은 칠을 하고 분선으로 그려낸 예가 많지 않은 선묘불화로서 화면 구성력이 돋보일 뿐 아니라, 精緻한 선의 자유로운 구사로 작품성 또한 뛰어나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보경사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나불도>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742년에 내연산 보경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雷現, 密機, 碩峯 등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화사들이 참여하여 그렸다는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 불화는 현재까지 사찰에서 봉안된 단 폭의 비로자나불회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에 해당하며, 주로 삼신불의 주존도로 그려진 것과 달리 전각의 규모에 맞게 단독의 비로자나불회도로 제작된 점도 주목된다.

또한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이 시기 불화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붉은 바탕에 백묘로 그린 朱地線描佛畫로서 특색이 있으며, 적색과 백색이 색 대비를 통해 선명하고 강렬한 회상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 색 바탕색과 백색의 선묘, 그리고 피부와 불신에 칠해진 肉色과 백색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한편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면서 그 크기를 조금씩 줄여가며 배치한 인물의 짜임새 있게 구도에서 무한한 공간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佛衣에는 선묘불화의 장점을 살려 화려하고 섬세한 온갖 문양들로 채워 佛法의 세계를 장엄하게 드러내었다. 보살상의 三屈의 유연한 자세와 사천왕상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 등에서 18세기 전반기 우수한 불화의 세계를 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전반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명칭재고, 畫記사례조사

조사보고서

□

○ 현 상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적광전에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삼베 8매 (8.9+38.8+37.4+37.0+37.9+37.6+37.6+36.9cm)를 연결하여 한 화폭을 형성하였다. 삼베바탕에 주색을 전체 바른 후 백색선으로 도상을 그리고, 두발과 눈썹, 입술, 수염 등 일부분에 먹색을 비롯 백군, 주색 등의 채색을 가미한 전형적인 선묘 불화이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백색이 약간 뿌옇게 번진 상태이고, 두발에 바른 백군의 박락이 눈에 띄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1) 화기 및 금서

화면 하단 중앙에 백색선으로 삼전패를 그리고, 그 안에 황서로 위패명을 적고 있다. 그 아래쪽에는 주색 바탕에 백색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千秋」(주색 바탕에 황서)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證師聖纘保体」誦呪戒聰保体」持殿雪湖保体」畫員秩」雷現保体」密機保体」碩岑保体」養供主秩」偉學保体」呂言保体」別座呂弘」化主雷善」都監嘉善」大夫覺信」本寺秩」山中太德」玄卞」老德國察」善行」前和尚時性」嘉善幸根」前和尚文(擇)」老德性希」前和尚天敏」前和尚竺瓊」前和尚玄默」前和尚竺能」老德再軒」老德最堅」老德文眼」贅梅」淸印保体」克点」僅寬」惠淡」衍輝」書記懶建」淨天」竺還」宗侃」宗熙」通政戒熏」前和尚印還」營首僧處湜」持事斗天」公員致贅」首僧双遠」三保宝旭」僧統六哲」(주색 바탕에 묵서)

2) 특징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세로 278.0, 가로272.1cm 크기의 삼베 바탕에 주색을 칠한 뒤 백색선묘로 그린 전형적인 선묘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그린 금니선묘 불화는 고려후기에 드물게 1사례(1359년, 일본 尊體寺 소장)가 있으나, 삼베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 중반부터 출현하였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화면 가운데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보살과 권속들이 에워싼 형태이다. 연판형 광배를 갖춘 본존은 낮은 방형좌 위의 연화좌 위에 앉아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그 양측에 원형 광배를 갖추고 연꽃 가지를 손에 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삼굴법 자세로 시립하고, 그 뒤쪽으로 화불 보관을 착용하고 정병을 쥔 관음, 옥인을 쥔 세지보살이 본존을 향해 몸을 약간 튼 자세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보살의 외곽에는 사천왕이 각각 2위씩 전후 열을 지위 배치하였는데, 본존의 좌측(향우측)에는 장검을 쥔 천왕, 비파를 든 천왕, 우측(향좌측)에는 이무기와 여의주를 쥔 천왕, 보차와 탑을 쥔 천왕이 외호하고 있다.

그 위쪽에는 천부복식을 한 범천과 제석천이 합장한 모습으로 시립하고 있다. 가장 최상단에는 선과가 담긴 반을 받들고 있는 동자와 공양녀, 합장형의 가섭과 아난, 사자와 코끼리 가면을 머리에 쓴 팔부중 2위(건달바, 야차)가 그려져 있다.

본존의 신체는 어깨가 둥글고 완만하게 처리되었으며, 지권인의 양 손은 흉전에 위치하며, 결가좌한 오른쪽 발은 노출되어 있다. 육신은 황색이 강한 황백색을 바르고, 육신선은 먹색으로 처리하였다. 안면은 방형의 둥근 얼굴로 가늘고 긴 눈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며, 코는 콧망울이 이중으로 겹치게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콧등 너비를 넘지 않게 작게 그려 매우 인상적이다. 두부는 먹색을 바른 위에 백군을 발랐으나, 박락 흔이 심하다. 지발은 넓게 표현하였고, 육계는 위로 높게 치솟은 형

태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본존의 법의는 승각기와 균의를 착용하고 복견의와 대의를 걸쳤다. 복견의에는 소형 화염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흘뜨려 장식하였고, 대의에는 마름모 연속무늬를 지문(地文)으로 그리고, 그 위에 이중원권문을 주문(主文)으로 표현하였으며, 가장자리 띠 부분에는 화염문의 반쪽을 반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이 같은 문양 표현은 16세기 삼베 선묘불화의 본존불 법의에 보이는 문양의 특징이다. 본존의 연판형 광배는 정상부에 여의두문을 장식하였고, 광배 가장자리에는 백색선으로 광염을 표현하였다.

좌우 협시보살은 7.5두신에 가까운 늘씬한 자태로 삼굴법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염문과 보주 장식의 화관, 허리 아래로 늘어뜨려진 수발 표현 등으로 보아 매우 화려한 모습이다. 어깨에 걸친 천의에는 소형 기하학원문과 화염문을 흘뜨려 장식하였다. 반면, 관음과 세지보살은 복견의와 대의를 착용한 모습으로 소형 화문과 만자문, 동그라미, 격자문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범·제석천와 사천왕의 육신은 기본적으로 백색을 발라 불보살과 위격을 달리하였다.

화면 하단 방형좌 전면에는 삼전패를 그리고, 중앙 전패에는 ‘主上殿下壽萬歲’ 좌측은 ‘王妃殿下壽齊年’ 우측은 ‘世子邸下千秋’라고 각각 적어 왕실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이어 아래쪽 화기란에는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내용은 건륭7년(1742)에 제작된 시기를 비롯하여 각종 소임을 맡은 승려들과 화원 등을 밝히고 있다. 수화승은 雷現을 비롯 密機, 碩岑 등 3인이 참여하였는데, 雷現은 그 외 작화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화승이다. 반면 密機는 1731년 수화승으로 경북 상주 정수사 석가후불도(의성 고운사 소장)와 지장보살도, 1739년에 경북 울진 불영사 삼장보살도(불국사 소장), 1740년에 수화승 혜식과 함께 대구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중수에 참여하였다. 1744년에는 수화승 세관과 함께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석가, 약사)와 시왕도(변성대왕) 등의 제작에도 관여하였다. 碩岑은 1764년에 수화승 수성과 함께 경주 금정암 지장보살도(소재불명),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아미타선묘불화 조성에 관여하였다.

표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조성에 관여한 화승의 활동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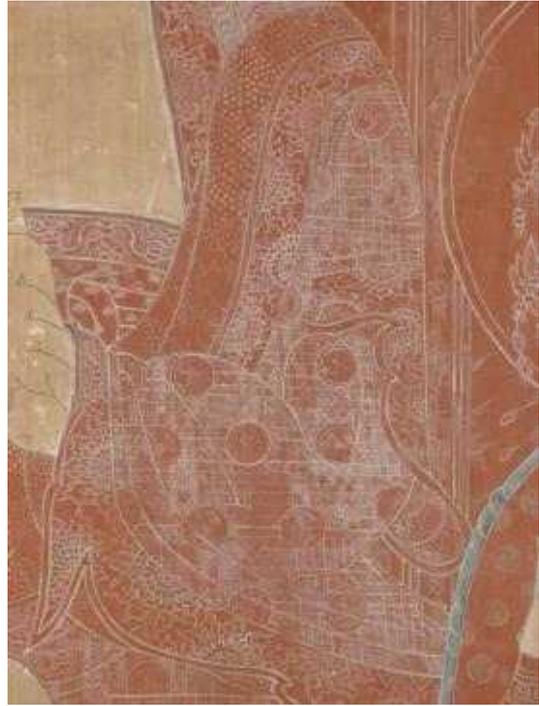
시기	명칭	소재	참여화승	비고
1731	석가후불도	경북 상주 정수사	密機,仁坦,哲眼	의성 고운사 소장
1731	지장보살도		密機,仁坦,哲(眼)	
1739	삼장보살도	경북 울진 불영사	密機,彩元,瑞澄	불국사 소장
1740	건칠보살좌상	대구 파계사	慧湜,密漪,明俊,偉順,性清,天真,證戒,玉蓮,善海,厚心,義謙,震贊,自還	1447년 원통전 건칠보살상 중수
1742	비로자나불도	경북 포항 보경사	雷現,密機,碩峇	*백색선묘불화
1744	삼세불도(석가)	경북 김천 직지사	世冠,神覺,密機,三玉,月印,瑞澄,性贊,舜侃,尊慧,宇平,天柱,應峇,有香,自還,湜演,謹軒	
1744	삼세불도(약사)		世冠,密機,月印,三玉,瑞澄,性贊,舜侃,尊慧	
1744	시왕도(변성대왕)		世冠,神覺,密機,三玉,月印,瑞澄,性贊	
1764	지장보살도	경북 경주 금정암	守性,碩峇,廣學,善定,定寬	소재불명
1764	아미타후불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守性,碩峇	*은선묘불화

표2. 조선후기 비로자나불도 조성 사례(기년명)

시기	명칭	소장처	화승	수화승
1731	비로자나불도	포항 보경사	마본주지백선묘	雷現
1759	비로자나불도	평창 월정사 (원주 영원사)	건본채색	悟寬
1791	비로자나불도	부산 범어사	건본채색	萬謙
1869	비로자나불도	순천 선암사 비로암	건본주지황선묘	妙英
1873	비로자나불도	해인사 법보전	건본채색	霞隱偉相
1886	비로자나불도	서울 봉은사	면본채색	影明天機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 전도



본존 비로자나불 부분도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

좌 : 좌협시 우 : 묵서화기

□

○ 현 상

보경사 주법당인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후불도>로서 삼베마탕에 붉은색을 올린 다음 분선(흰 선)을 사용하여 그린 線描佛畫이다. 본존불을 비롯하여 각 존상의 경우 피부와 머리칼만 색을 칠하여 선묘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 내용 및 특징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상을 본존으로 삼고 주위로 주협시보살인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위시한 6보살상 및 사천왕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호계대신과 복덕대신 2대신상, 2위의 동녀상을 좌우 2열로 배치한 群圖 形式의 <비로자나불도> 이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智拳印을 짓고 있는 화면 중앙의 본존불은 둥글어진 턱으로 원만형이나 넓게 벌어진 어깨에 미소가 보이지 않는 얼굴에 눈과 코를 큼직하게 표현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반면, 입을 작게 묘사 하여 다소곳한 느낌이다. 귀 윗부분의 옆머리가 넓어지고 뽕족한 육계를 한 머리에는 반월형 中央髻珠와 구형의 頂上髻珠를 갖추었으며, 두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지고 목에는 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法衣는 양어깨를 다 덮은 通肩으로 마름모꼴 문양이 바탕을 이루는 大衣 몸체에는 안쪽에 파도문이 표현된 둥근 문양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으며, 깃의 넓은 단에는 蓮花와 牡丹花가 복합된 형태의 寶相華 문양이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다. 대의 아래로 드러난 上衣의 경우 몸체에는 花紋을 뾰뾰하게 그리고 단에는 연화문을 나타내었으며, 가슴 아래로 목음이 표현된 裙衣 단에는 결련문 모양의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몸체에는 +자형 幾何紋이 들어 있는 둥근 문양과 작은 크기의 꽃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본존불의 경우 18세기 들어 키 형 광배와 함께 유행한 單瓣 연꽃잎 모양(혹은 舟形)의 광배를 구비하였는데, 안쪽으로는 화문이 연속하여 묘사된 테두리가 둘러지고 바깥쪽으로는 불꽃무늬를 둘러 장식한 화염광배이다.

본존불 좌우에서 시립하고 있는 협시보살상은 왼쪽(向右側)에 문수보살상을 그리고 오른쪽(向左側)에 보현보살상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좌우가 바뀌어 왼쪽에 보현보살상을 그리고, 오른쪽에 문수보살상을 표현하였다.

두 보살상 모두 중앙의 본존불 쪽을 향해 S자 형으로 몸을 살짝 튼 채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胸飾에 卍字를 장식한 문수보살상은 如意를 오른 어깨에 비껴 들고 있으며, 보현보살상은 曇字를 장식한 幢을 착용하고 연꽃가지를 왼 어깨에 기대어 받쳐 들고 있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턱이 둥글어진 원만형의 얼굴에 미소를 잃은 채 큼직한 눈과 코를 구비한 반면 입은 작게 그렸으며, 목에는 삼도 표현이 뚜렷하다.

이와는 다르게 머리 부분 좌우에 본존불을 향한 채 자리한 4보살상의 경우는 후덕한 모습의 얼굴에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난다. 4보살상 가운데 본존불 광배 좌측에 접하여 자리한 보살상은 머리의 보관에 化佛이 보이고 손에 甘露瓶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상임이 분명하지만, 나머지 보살상들의 존명은 잘 알 수가 없다.

화면 상단 좌우에 대칭하여 자리한 존상은 2대신과 2제자, 2동녀로서 2제자는 10제자를 대표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 모습의 가섭존자와 청년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상으로, 본존불 및 좌우협시보살상들과는 달리 둥근 얼굴에 표정이 온화하다.

좌우 협시보살상 바깥쪽에 상하로 그려져 있는 사천왕상은 좌측에는 琵琶와 劍을 받쳐 든 2위의 천왕상을 그렸으며, 우측에는 龍과 火焰寶珠를 파지한 상과 幢과 塔을 지물로 한 상 등 2위의 천왕상이 자리하였다. 4위의 천왕상의 얼굴 표현을 보면 짙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과 좌우로 뻗친 수염을 하여 강인한 인상을 주어 호위신중으로서의 분노상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본존불 수미단에 이어 3개의 牌가 그려져 있는데 중앙쪽의 ‘主上殿下壽萬歲’와 함께 좌우측으로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三殿牌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미단 아래쪽 화면 중앙에 화기란을 마련하여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라는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어 이 불화는 1742년 ‘뇌현, 밀기, 석잠’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파악된다.

수화승 ‘뇌현’과 참여화승 ‘밀기’는 18세기 전반 경상북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화승들로, ‘뇌현’의 경우는 이 보경사 <비로자나불도>가 현존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에 비해 ‘밀기’는 이보다 먼저 1731년 팔공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의균’의 영향을 받아 상주 정수사 <석가모니불도>와 <지장보살도>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1739년 울진 불영사 <삼장보살도>와 1742년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744년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 ; 석가모니불도, 약사불도>와 <시왕도> 등을 조성하는데 수화승 또는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활약상을 보인다.

홍칠 바탕에 분선을 사용하여 표현한 선묘불화로서의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군도형식의 불화들과 달리 권속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화면 구성력이 돋보일 뿐 아니라, 각 존상의 형태 및 문양 표현에 있어精緻한 선의 자유로운 구사로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고 하겠다.

[畫記]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證師 聖纘保体

誦呪 戒聰保体

持殿 雪湖保体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養供主秩

偉學保体 呂言保体

別座 呂弘

化主 雷善

都監 嘉善大夫覺信

本寺秩

山中大德 玄卞 老德國察 善行 前和尚時性 嘉善幸根

前和尚文擇 老德性希 前和尚天敏 前和尚竺瓊 前和尚玄默

前和尚竺能 老德再軒 老德最堅 老德文眼 贅梅 清印保体

克点 仅寬 惠淡 衍輝

書記 懶建 淨天 竺還 宗侃 宗熙 通政戒熏 前和尚印還 營首僧處湜

持事 斗天

公員 致贅

首僧 双远

三保 宝旭

僧統 六哲

[사진자료]



사진 1.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도 전체, 1742년



사진 3. 비로자나불도 우측부



사진 2. 비로자나불도 좌측부



사진 4. 비로자나불도 상부



사진 5. 본존불 상반신



사진 6. 본존불 하반신



사진 7. 좌측부 보현보살과 권속



사진 8. 우측부 문수보살 및 권속



사진 9. 보현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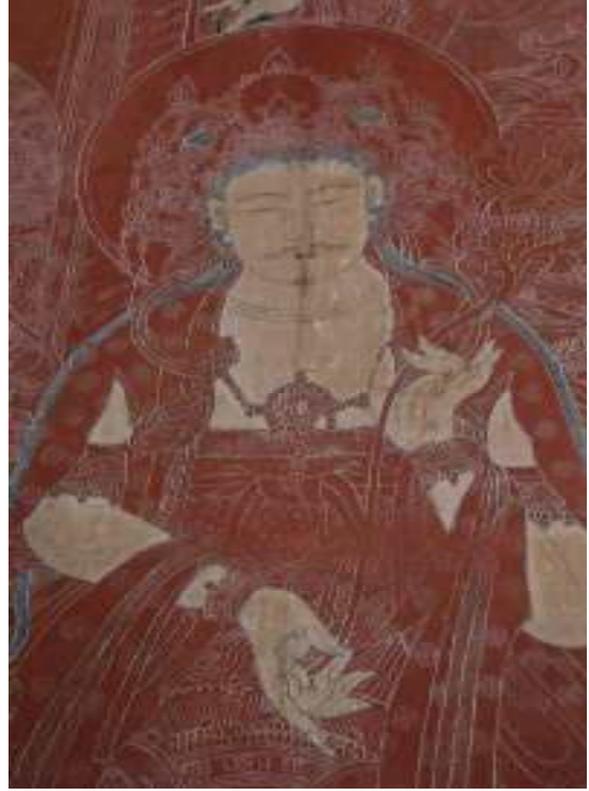


사진 10. 문수보살상



사진 11. 보살상 1 - 관음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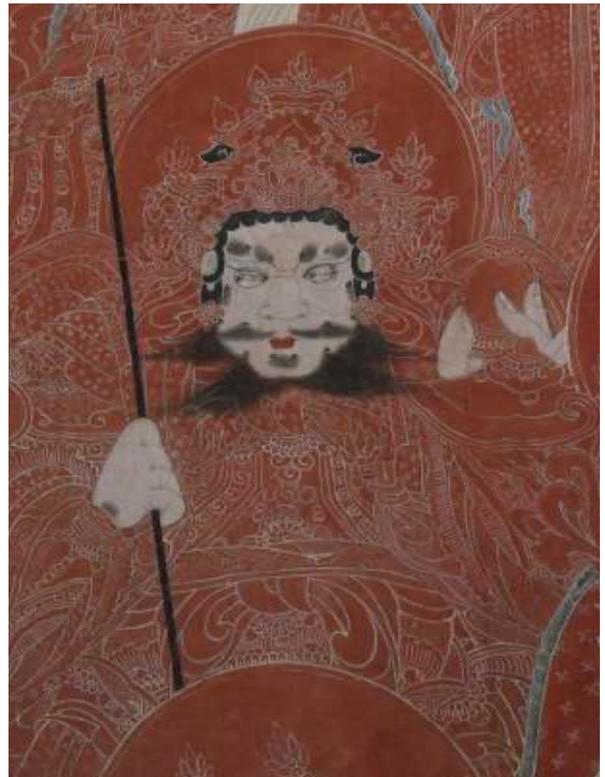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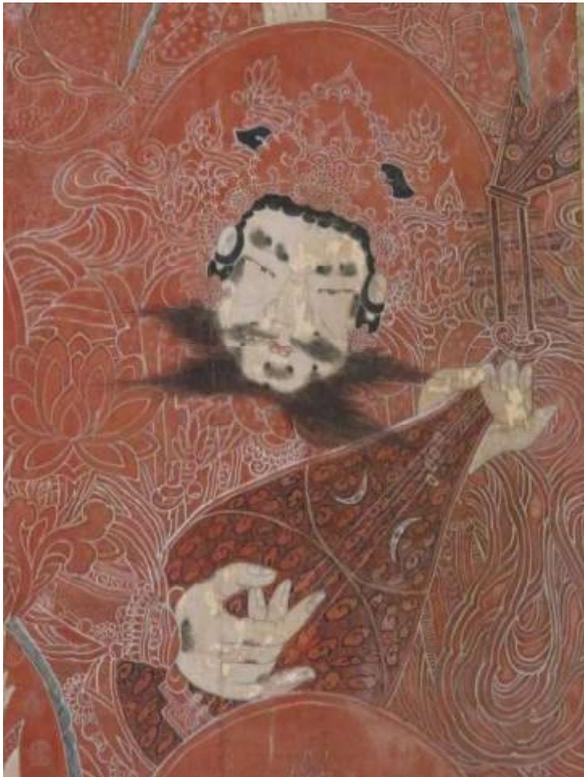
사진 12. 보살상 2



사진 13. 전패 1



사진 14. 전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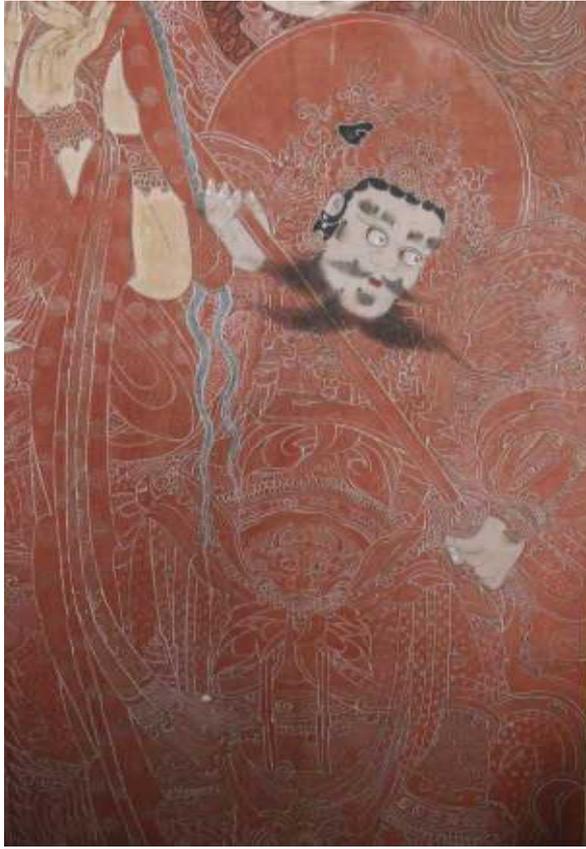


사진 15. 사천왕상 1 ; 동-남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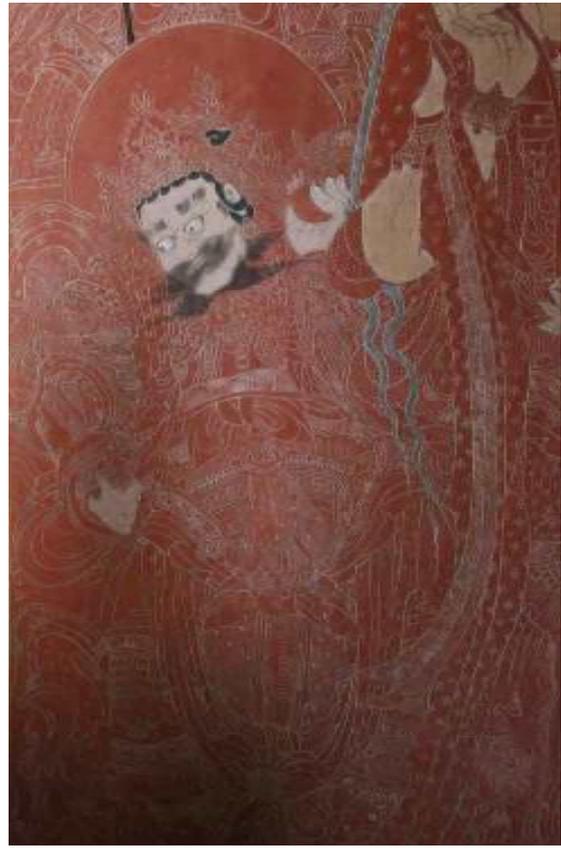


사진 16. 사천왕상 2 ; 서-북방천왕



사진 17. 화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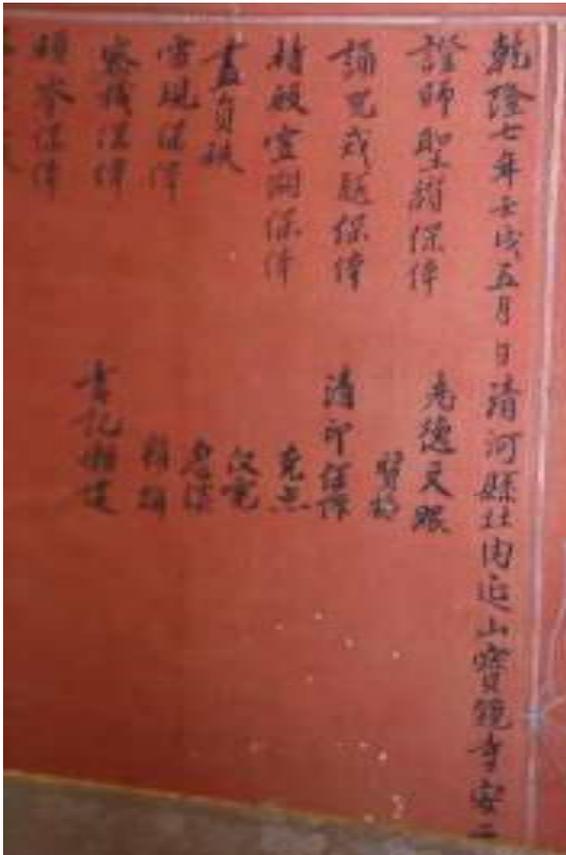


사진 18. 화기 부분 1 - 조성시기,봉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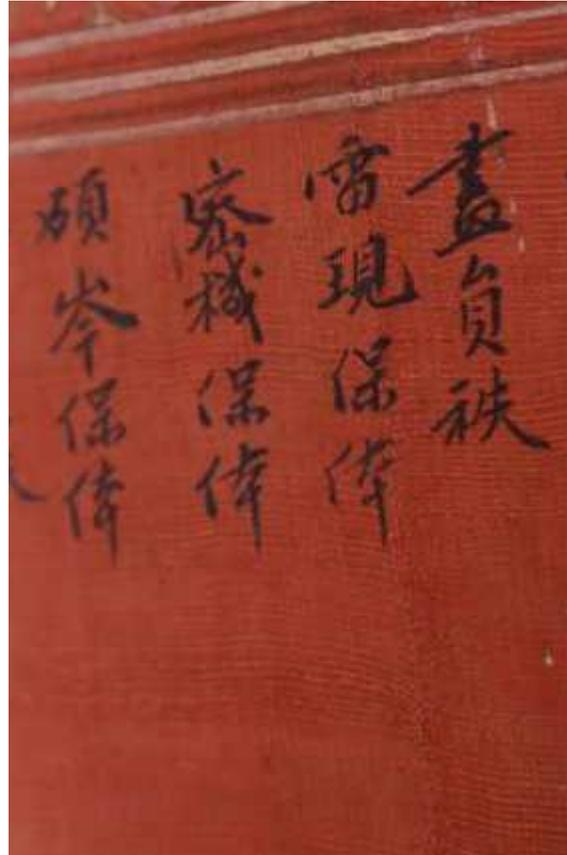


사진 19. 화기 부분 2 - 화원질

□

○ 내용 및 특징

이 「비로자나불회도」는 보경사 적광전 후불화 조성된 것으로, 삼베바탕에 붉은색을 칠하고 白線描와 金線妙로 그린 비로자나설법도이다. 이와 같은 선묘불화는 채색불화와 함께 불교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른 선례로는 1309년 노영이 그린 ‘노영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보물 제1887호)가 있으며, 이외에 사경화도 이와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보경사 불화와 흡사한 붉은색 바탕에 백선묘 또는 금선묘로 그린 것은 조선 전기에 등장한다.

이 불화는 적광전 상단에 봉안된 후불도답게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會上 장면을 담고 있는데, 아마도 『화엄경』을 설법한 장소의 하나인 보광명전이나 적멸도량의 설법 장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회도는 현재 석가·노사사불회도와 함께 3폭의 삼신불회도를 이루며, 대형 불전의 후불벽에 걸리는데, 이 불회도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보경사 대적전의 규모에 맞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1742년(영조 18)에 내연사 보경사에 봉안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원래의 봉안장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그림의 증명은 聖纘이 맡았고, 재원을 마련한 化主는 雷善, 화사는 雷現, 密機, 碩峯 등 3명의 승려화원이 공동으로 그렸다. 수화승 뇌현은 이 비로자나불회도 이외 알려진 작품이 없지만, 이 작품을 통해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화사였음을 알 수 있다. 차화원 밀기는 이 그림에 앞서 1731년에 정수사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원 봉안처 옮긴 불영사, 1739년)를 수화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1742년)이다. 1744년에는 수화승 세관을 도와 직지사 석가여래삼세불도(1744)라는 대작불사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직지사 시왕도도 제작하였다. 이외 제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전사 영산회상도도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밀기는 18세기 전반기 경북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사중 한명이다. 세 번째 화승 석잠은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를 비롯하여 금정암 지장보살도(1764, 소장처미상)¹⁾,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768) 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붉은색 바탕에 백묘로 선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강렬한 분위기와 선명한 선묘를 한눈에 들어다 볼 수 있다. 불꽃이 타오르는 꽃잎형의 거신광배를 등지고 지권인을 결한 주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에워싼 군도형식의 불화이다. 비로자나불상은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라고 묵서한 왕실 삼전하에 대한 수명을 축원한 三殿牌가 놓인 수미단 위에, 놓인 붉은 연꽃대좌에 결가부좌하였다. 노출된 오른발의 발꿈치를 유달리 돌출시킨 발꿈치가 인상적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깔때기모양으로 뾰족하게 솟구친 육계를 지녔으며, 머리의 정상과 중앙에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와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표현하였다.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단정하게 표현하였고, 二重의 콧방울은 이 시기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의 특징이다. 비로자나불은 얼굴이 신체에 비해 크게 묘사되었는데, 아마도 예배자의 시선이 고려된 듯하다. 大衣는 이중착의법으로 걸쳐 입었는데, 대의에 표면과 깃에는 화려한 문양을 정치하게 그려 넣어 화려함을 극대화 하였다. 대의의 표면에는 격자문을 긋고 그 안에 작은 마엽문을 그려 넣었고, 마엽문 위에는 수를 놓은 듯 水波圓文을 큼직큼직하게 배열하였다. 대의의 깃에는 국화문과 연화문을 시문하였고, 군의 깃에는 흔히 단청문양에서 많이 보이는 녹화문(곱팽이문)을 시문하였다. 이외 대의와 군의의 표면에는 화문, 구슬문 등을 세밀하게 그려 넣어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지권인은 주먹 권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권 지권인으로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상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머리의 검은색 안료와 눈썹과 수염의 녹색 안료는 떨어져 나갔다. 피부와 신체의 윤곽은 가장 굵은 색 선을 사용하였고, 세부 주름과 문양에 사용되는 주름 선은 이

1) 금정암 지장보살도는 현재 소장처 미상으로 守性, 碩峯, 廣學, 善定, 定寬 등의 승려화원이 그렸다. 석잠은 차화원으로 참여하였다.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11), p. 554.

보다 가는 선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선은 대체로 유려한 흐름의 보이며, 머뭇거림이 없다.

화면의 비로자나불의 좌우측에는 화려한 보관과 세밀한 문양이 시문된 천의를 걸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시립해 있다. 문수보살은 ‘옴’자가 적힌 큼직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잡았고, 보현보살은 ‘卍’자가 적힌 큼직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두 손으로 여의를 잡았다. 두 보살상은 풍성한 검푸른 보발을 어깨를 따라 허리춤까지 길게 늘어뜨렸고, 본존불의 어깨 높이까지의 늘씬한 신체비례를 보이며 三屈의 유연한 자세를 뽐내고 있다. 화면 하단 가장자리 좌측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이 보검을 쥐고 있는 동방 지국천왕이 위아래로 배치되었으며, 우측에는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는 남방 증장천왕과 당탑을 들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이 아래·위에 각각 배치되었다. 사천왕상은 흰색피부에 수염을 호방하게 붓질하고, 위협적인 표정과 눈을 굴러가며 사방을 호위하는 자세이다. 화면의 중단에는 보관에 화불을 가지고 있는 관음보살이 검정색 정병을 잡았고, 그 옆에는 범천이 자리를 잡았다. 그 대칭되는 반대편에는 대세지보살과 제석천이 자리하고 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늙은 비구로 표현된 가섭존자, 그리고 두 갈래로 상투를 묶은 동자가 여의주를 들었고, 그 반대편에는 코끼리관을 쓴 야차와 젊은 비구모습으로 표현된 아난존자, 그리고 공양물을 받쳐 든 천녀가 대칭적 구도 속에 배치되었다. 하늘의 빈 공간에는 부처님의 계주에서 뻗어 나온 瑞光과 뭉게뭉게 흘러가는 구름으로 채웠다. 이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자세와 표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즉, 반쯤 잠긴 눈으로 슬며시 곁눈질 하는 서방 광목천왕의 익살스런 표정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三屈의 유연한 자세를 취한 협시보살상은 엄숙한 회상에 상큼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에워싼 원형구도를 보여주고 주며, 화면의 아래쪽은 존상을 크게 위쪽은 작게 표현하여 원근감과 공간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이러한 배치와 표현방식은 조선시대 불화에서 보편적인 표현방식이다. 특히 불상과 보살상의 피부는 육색으로 하여 차별하게 처리하고, 화면의 외연에서 도량을 옹호하는 사천왕상은 하얀 피부와 호방하게 터치한 검은 수염을 통해 입체적인 효과를 부여하였다. 선묘는 주로 백선묘를 사용하되, 삼전패와 연화대좌, 보살과 불의 천의 등 일부에는 강조색으로 금색선이 사용되었다.



그림 20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 1742년

○ 화기(33.1×71.2cm)

乾隆七年壬戌五月日 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證師 聖纘保体

誦呪 戒聰保体

持殿 雪湖保体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養供主秩

偉學保体

呂言保体

別座呂弘

化主雷善

都監嘉善

大夫覺信

本寺秩

山中大德

玄卞

老德旺察

善行

前和尚時性

嘉善幸根

前和尚文擇

老德性希

前和尚天敏

前和尚竺瓊

前和尚玄默

前和尚竺能

老德再軒

老德最堅

<하단>

老德文眼

贊梅

清印保休

克点

僅寬

惠淡

衍輝

書記懶建

淨天

竺還

宗侃

宗熙

通政戒熏

前和尚印還

營首僧處湜

持事斗天

公員致贊

首僧双遠

三保宝旭

僧統六哲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浦項 寶鏡寺 寂光殿 須彌壇)

가. 검토사항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재)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3.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2017년 제3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 하였으나, 과학조사 보완사유로 보류됨. 이에 관계전문가 과학보완조사(‘17.9.2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 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浦項 寶鏡寺 寂光殿 須彌壇)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수 량 : 1점
- 규 격 : 92.0 × 358 × 159.7cm
- 재 질 : 목재
- 형 식 : 불교 목공예품
- 조성연대 : 1569년(선조 2)
- 제 작 자 : 畫工 溟暋, 木手 克淳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원래 놓였던 장소에서 이전 설치되는 과정에서 원형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문에 의해 제작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임이 분명하다. 또 여의두문에 좌우향 초엽장식을 한 풍혈양식과 쌍사면과 쌍사모의 쇠시리 양식, 쇠못과 나무못을 겸용한 점 등 조선 중기의 양식을 잘 보이고 있어 목공예의 편년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찰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목재 유물인 이 수미단은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역사적 가치, 희소성, 학술적 가치 및 활용, 예술성 등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여야 될 유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수미단은 1569년에 조성되었다는 조성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수미단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수미단의 형태는 가리개형 수미단으로 寶殿形 수미단과 대좌형 수미단과 더불어 일반형 수미단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어, 불단 연구의 변화과정을 살피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수미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화공(溟禧)과 목수(克淳) 등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귀중하고, 당시 수미단 제작에 화공과 목수의 분업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큰 의의가 있다.

이 수미단은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불전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화려하고 장대한 규모의 수미단은 아니지만, 아담한 규모와 담백한 장엄만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작가와 절대 연대가 거의 없는 수미단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가 되는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측면에 조각된 명확한 조성연도와 더불어 古式의 유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공예품은 조성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매우 희소하여 史的인 연구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리 풍혈의 특징적인 조각은 후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1569년이라는 명확한 연도까지 알 수 있어, 목공예 양식 고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되어, 앞으로 연구의 기준이 되기에 적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추가비교조사

조사보고서

□

○ 현 상

마대 위에 2층의 단이 얹어진 형태로 현재 수미단의 평면은 형이며 좌우대칭이다. 수미단 틀 내면(內面)의 공간에 후에 제작한 별도의 단을 설치하여 삼존불을 모셨다.

○ 내용 및 특징

1. 명문이 있어 조성시기(1569년)와 조성목적(열반 이룸), 조성자(시주 겸 화주, 공양주, 화공, 목수 등 모두가 승려임)를 알 수 있다.
2. 대부분의 수미단은 3층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 수미단은 2층으로 된 점이 특징이다.
3. 양식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중기 까지 이어져온 목공예 양식을 보인다. 즉 쌍사면에 쌍사모를 쇠목에 장식하였으며, 다리 풍혈은 여의두문을 중앙에 두고 좌우향 초새김(草刻)을 하고 있다.
4. 쇠못과 나무못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후기의 목공예품에는 쇠못을 쓰지 않는다.
5. 원래의 장소에서 이전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일부 훼손이 있었다고 보인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수미단은 2단(마대포함 3단)의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일반적인 3단(마대 포함 4단)의 수미단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2. 수미단의 현재 평면은 형으로 상판(上板)과 안쪽의 3면은 현재 판재로 막혀있어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좌우측면 하부의 3곳에 장부구멍과 장부촉을 볼 수 있어 원형은 장방형으로 그 위에 불상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현재는 수미단 형 내면의 공간에 별도의 단을 설치하여 삼존불을 모셨다.
4. 치수는 가로가 345cm, 문에서 단을 향해본 우측면의 세로는 199cm, 문에서 단을 향해 본 좌측면의 세로는 199,5cm 이며 총고는 91.5cm이나 현재의 상판인 두께 5.5cm의 판은 후보한 것이므로 원래의 높이는 86cm로 보인다. 1단과 2단의 두께는 알 수 없으나 아래쪽 마대부분은 상부가 14cm, 아래쪽 다리부분이 9.5cm이다. 즉 마대부분은 적어도 14cm 의 통판(全板)나무를 사용하여 다리와 풍혈을 양각으로 돌출되게 박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다리의 풍혈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 중기 까지 목공예에 보이는 양식을 보인다. (사진 4, 사진5, 사진 6, 사진 8, 사진 9) 사진 4 육존자상은 傳 당나라 노룽가의 그림으로 불교의 도입과 함께 그림 속 경상 양식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사찰에서

사용되었고 시대가 흐르면서 신숙주 영정(사진 8), 이현보 영정(사진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같은 풍혈은 조선후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6. 수미단 上段의 쇄목은 쌍사면에 쌍사모를 하였고

下段의 쇄목은 쌍사면에 쌍사모이며

마대부분의 쇄목은 평면에 쌍사모를 하였다.

이와같이 쇄목과 동자에 쌍사면, 쌍사모를 하는 기법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양식(사진 7 참조)으로 조선 후기의 쇄목이나 동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다.

7. 머름판의 동자는 연주형으로 고려시대 광명대의 간주와 같은 양식이다.

8. 앞면과 좌우 측면의 조각된 머름판은 안상형으로 투공하여 뒤쪽에 널을 댄 부판을 한 형태이다. 조선 후기 무늬가 아름다운 용목, 문목을 대어 부판하는 화장재의 선행기법으로 보인다.

9. 조각은 용과 모란, 귀(용)면, 연당초, 파련화 등 모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양을 시문하였다. 조각은 화려하고 정교하지는 않으나 소박하고 성실하게 정성들여 제작하였다. 다만 덧칠한 채색으로 본래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었다.

10. 나무못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수미단의 좌측면과 정면이 맞닿는 부분은 나무못과 쇄목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소목에는 쇄목을 사용하지 않으나 사진 7고려장(2011, 3, 26일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 홍무 21년 무진 4월명 가구)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경함(2014년 7월15일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나전경함 기증유물공개 보도자료)에는 쇄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좌우측 하단의 머름칸은 빗모로 접은 아자형 투공을 나란히 내어 뒷면에 부판하고 불상의 우측에 발원문을 각을 하였는바 이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양식으로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12. 발원문의 내용으로 조성시기(1569년)와 조성목적(열반 이룸), 조성자(시주 겸 화주, 공양주, 화공, 목수 등 모두가 승려임)를 알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銘文： 發願文「無過煩惱斷」無量法門學」誓度諸有情」皆共成正覺」願生出善家」願早遇明師」願語茲法門」願信心堅固」願戒行清淨」願經心永斷」願○眠輕衍」常行六波羅密」 侂天大報恩」國王哀報恩」世界施主恩」父母受主恩」四恩三有盡忠」忘永斷生」 凡入涅槃」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成」施主兼化主信眉」供養主玄一」書工溟嘻」木手克淳」

위의 결손된 글자는 단(斷) 또는 멸(滅)자로 보임

<발원문>

한없는 번뇌를 끊고, 끝없는 법문을 배우며, 모든 유정을 제도하고 함께 정각을 이루기를 서원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남을 바라며, 좋은 스승을 일찍이 만나기를

바라며, 법문을 말로 풀어 내기를 원하고, 신심이 견고하기를 원하며 계행을 청정히 함을 바라며, 욕심이 영구히 끊어지고, 눈요기의 즐거움 조차 끊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육바라밀을 행하여, 하늘이 큰 보은을 내리어, 국왕이 공홀히 보은을 내리며, 세계가 은혜의 베푸는 주체가 되고, 부모가 주인된 은혜를 받으며, 이러한 四恩(천지, 국왕, 부모, 중생의 네가지 은혜)과 三有(色界, 欲界, 無色界의 三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원한 죽음을 다 잊고, 두루 열반에 이르기를 융경 3년(1569년)기사, 1월 일 이룸. 시주겸 화주 신미, 공양주 현일, 화공 명희, 목수 극순.



[사진 1]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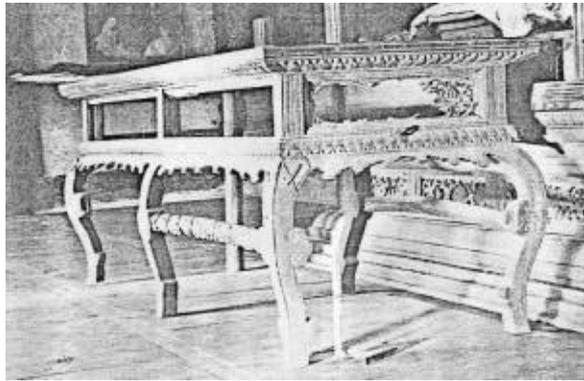
[사진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명문 ①



[사진 3]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명문 ②



[사진 4] 傳 唐나라 盧稜伽작 六尊者 像



[사진5] 봉정사 극락전 내부 탁자(近藤豊 한국건축사도록에서 발췌, 일본 경도 1938년)



[사진 6] 선암사 퀘(선암사 정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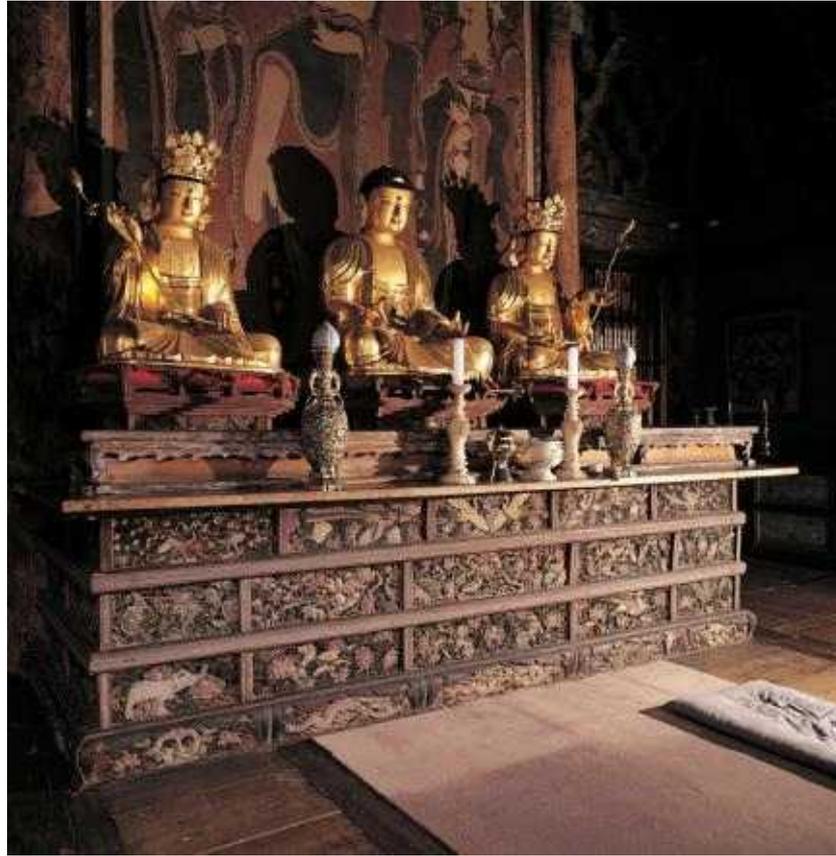
[사진 7] 〈洪武二十一年 戊辰 四月〉 銘 가구



[사진 8] 신숙주영정 보물 제613호(1475년)



[사진 9] 이현보영정 보물 제 872호(1537년)



[사진 10]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永川 銀海寺 百興庵 須彌壇) 보물 제 486호



[사진 11]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세부

□

○ 내용 및 특징

적광전(보물 제1868호) 내부는 상·하 연등천장과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미단은 흔히 볼 수 있는 수미단과 달리 수미단 위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지 않다. 불단의 측면도 高柱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장판과 홍살로 연결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적광전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방형수미단을 설치하지 않고, 불상을 돌며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고식 불전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으나, 후대 건물이 중창되고, ‘右繞三匝’의 예불 의식에서 佛前 禮佛로 의식행위가 변화하면서 고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가리개형 수미단은 寶殿形 수미단과 臺座形 수미단과 더불어 일반형 수미단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과도기적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미단의 평면은 ‘ㄱ’字형으로, 수미단의 안쪽에는 흙으로 빚어 조성한 비로자나삼존불을 봉안하였다. 비로자나삼존불상은 조성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개금으로 인하여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존불상의 뒷면에는 붉은 바탕에 白描로 그린 비로자나불설법도가 후불도로 걸려 있다.

수미단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는 전돌의 상부에 1단의 토층으로 쇠시리하고 그 윗면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족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여의두문과 계눈각을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구름처럼 연결하였다. 중대에는 각종 문양을 조각하여 장엄하고 채색하였다.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중대는 중대목을 중심으로 상하로 2단으로 구분하였다. 상단은 다시 동자목로 3면으로 구획하고, 중앙 청판에 구름 속을 역동적으로 비행하는 측면관의 龍文을 새겨 넣었고, 그 좌우에는 波蓮의 風穴을 마련하고 모란당초문을 입체감 있게 조각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眼象 모양의 풍혈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겨 넣었다. 하단은 童子木으로 4면으로 구획하고, 가운데 위치하는 두 면에는 파련형의 풍혈 내부에 정면향의 귀면문을 새겨 넣었고, 그 좌우 풍혈에는 연화당초문과 버선코 형태의 波蓮花文을 새겨 장엄하였다. 좌우 측면은 청판 안에 가구형식의 머판인 궁창을 ‘十’자형으로 모접이 하였는데, 좌측칸 2면에는 界線을 긋고 발원문과 제작시기, 제작자 등을 음각하였다. 이곳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이 수미단은 隆慶 3年 己巳(1569년, 선조 2) 해에 畫工 ‘溟禧’와 木手 ‘克淳’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는 안으로 내반된 천판과 1단의 오목형 천판받침, 두터운 중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터운 중대목이 받치고 있는 상대는 古式의 수미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는 수장판과 홍살을 이용하여 고주에 연결시켜 마무리한 점 등과 함께 16세기 수미단의 특징이다.



그림 1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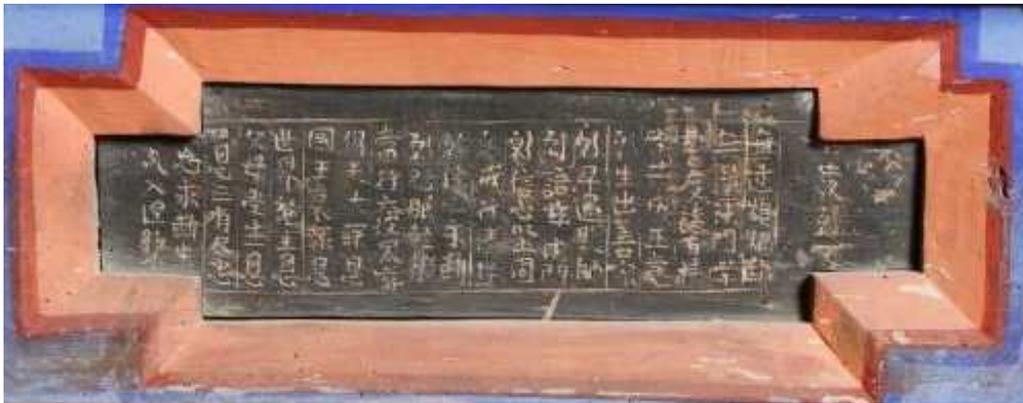


그림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발원문



그림 3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조성기

<좌측>

無^レ煩惱斷」無量法門學」誓度諸有情」皆共成正覺」 願生出善家」願早遇明師」願語茲法門」願信心堅固」願戒行清淨」願淫心永斷」願瞞眼輕術」常行六波羅密」^レ天大報恩」國王哀報恩」世界施主恩」父母受生恩」四恩三有^レ盡忠」忘永斷生」^レ死入涅槃」

<우측>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戌」施主兼化主信眉」供養主玄一」畫工溟(?)^レ嘻」木手克淳」

○ 문헌자료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현 상

1. 맨 위판과 좌우 측면의 후반을 잇는 부분은 근래에 보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ㄷ’자형의 앞좌우면은 큰 변형 없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 결구에 있어 굵은 쇠못을 쓰고, 쇠목은 5cm 이상으로 굵은 부재를 사용하는 등 탄탄한 짜임과 구조를 했다. 다리 부분은 두께가 14cm 이상이나 되는 부재를 사용하여 무게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게 하고, 바탕을 파내어 문양을 조각하여서 장식성을 부여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였다.
3. 봉안된 불상을 기준으로 좌측면에 해당하는 쇠목을 보면, 맨 위와 중간 쇠목에는 쌍사면과 쌍사모를 쳤고, 맨 아래에는 쌍사모를 쳐서 두꺼운 부재를 장식하였다.
4. 수미단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면을 비롯하여 각 면을 연주문 조각으로 구획하고, 면마다 龍面과 연화·초문 등을 조각하였다. 연주문의 분할은 각각의 면을 등분하였는데, 정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단은 108cm씩으로 일정하게 나누었고, 하단 양 끝단은 52-53cm 정도로 하고 중앙부분은 108-109cm 정도로 각각 분할하였다.
5. 앞면과 좌우면의 다리 풍혈 부분은 다른 古式의 유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6. 불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측면에는 아자형 안에 발원문을 새기고, 조성 연도와 시주자·제작자를 명시하였다.

○ 내용 및 특징

1. 굵은 부재의 쇠목에 쌍사면과 쌍사를 치고, 쇠못을 사용한 것은 이 목조 구조

물의 특징으로 古式이다.

2. 다리 부분의 특징적인 풍혈은 고식의 유물들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조성연도와 더불어 이 수미단 역시 고식임을 말해주는 특징이다.
3. 불상 기준 우측면의 명문 기록은 이 수미단의 조성연도를 알려주는 기록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조성연대의 기록은 수미단 뿐 아니라 목공예품 중에서도 매우 희소한 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조성연도 또한 1569년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
4. 불상 기준 좌측면에 발원문이 조각되어 있다. 발원문에서는 四恩三有와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는 내용과 더불어 말미에,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成施主兼化主信眉 供養主玄一 畫工溟嘻 木手克淳” 라고 적고 있다. 즉 시주자 信眉· 화공 溟嘻· 목수는 克淳이 참여했으며, 隆慶三年(1569년) 6월에 제작하였다고 명시하여, 조성연도를 비롯한 시주자와 참여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도 3>
5. 쇠못을 사용하고, 쇠시리를 쌍사면과 쌍사로 처리한 것은 古식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4>-<도 5>) 이러한 쇠시리 장식은 전등사 수미단(인천유형문화재 제48호)과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수미단(보물 제486호)에서도 확인되어 비교할 수 있다.
6. 다리 부분 풍혈의 모양은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고식의 사찰 목공예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6>-<도 8>)



<도 1>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도 2>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정면)



<도 3>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측면의 명문기록)



<도 4> 수미단 측면 쇄목(쌍사문과 쌍사모)



<도 5> 홍무 21년명(1388년 명) 단층장. (미술사학연구 271·272,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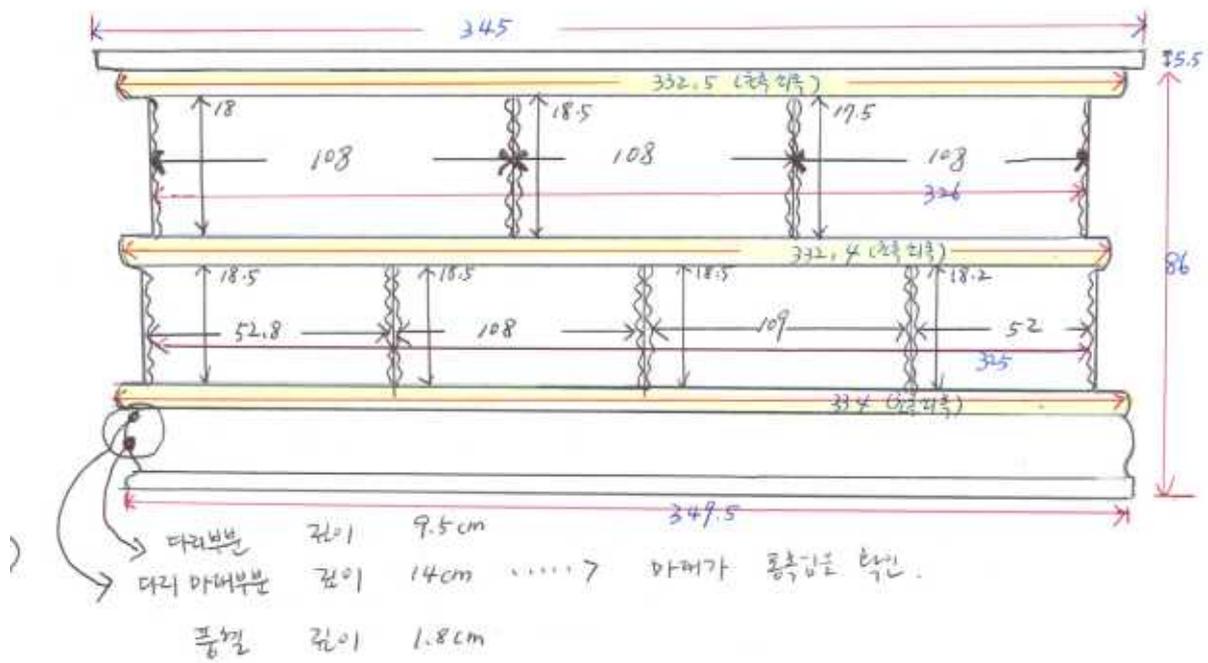
<도 6> 수미단 측면/ 다리 풍혈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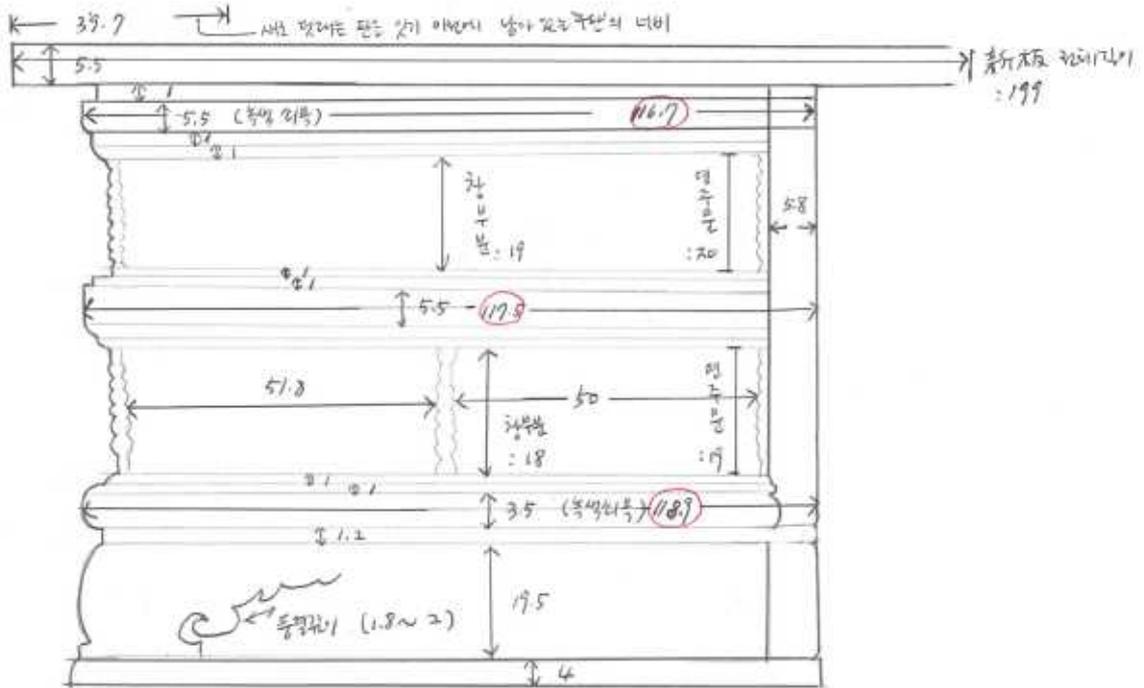
<도 7> 康熙 21년명(1682년) 경상,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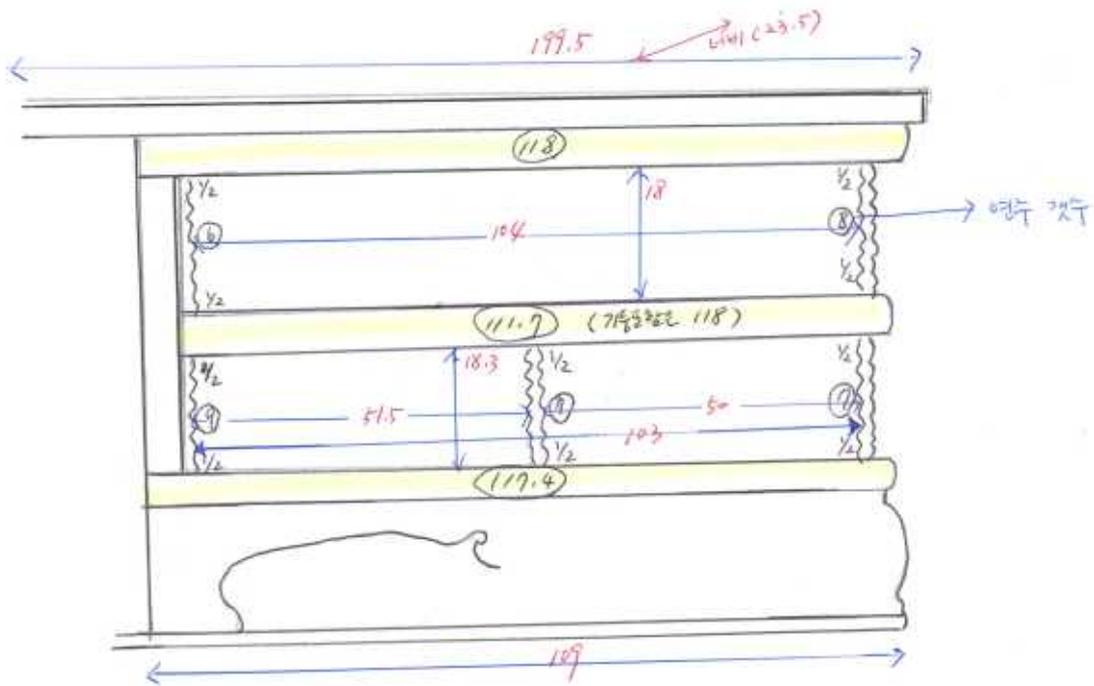
<도 8> 봉서암 감로탱, 1759년, 호암미술관 소장



<도 9> 수미단 정면 규격



<도 10> 불상 기준 좌측면 규격



<도 11> 불상 기준 우측면 규격

‘전국 사찰문화재(목판) 일제조사’ 결과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에 따른 종합의견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청 용역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2014-2015)에서 조사한 목판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13종을 추천하였다. 이 목판들은 모두 병자호란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결판 없이 완전하거나 결판이 있다면 1판 이내의 것이었다.

추천된 13종의 목판을 실사한 결과, 9종은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4종은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목판의 완전성 여부, 보존상태, 특이성 등을 주로 보았고, 동일한 불서일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목판을 우선으로 하였다.

지정대상 9종은 해남 대흥사의 <묘법연화경> 1종, 충남 아산 세심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1종, 충남 서산 개심사의 <묘법연화경>, <도가논변모자리혹론>, <계초심학인문>, <몽산화상육도보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오대진언> 등 7종이다. 지정대상 9종의 목판을 개괄적으로 보면 <표1>과 같다.

<표1> 국가문화재 지정대상의 목판 9종

구분	명칭(소장 목판)	시 기	수량	형태	간행지	결판	선정이유
1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목판	1561	245	1판2장	지제산 천관사	1판 (2장)	·현존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2	아산 세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목판	1563	13	1판2장	동림산 심신사	1판 (2장)	·현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구분	명칭(소장 목판)	시 기	수량	형태	간행지	결판	선정이유
3	서산 개심사 묘법연화경목판	1565	111	1판4장	가야산 보원사	1판 (4장)	·현존 성달성서계의 <묘법연화경> 고산 화엄사 판본 중 가장 오래된 목판
4	서산 개심사 도가논변모지리혹론목판	1580	4	1판4장	가야산 보원사	1판 (4장)	·현존 유일한 <도가논변모지리혹론> 목판
5	서산 개심사 계초심학인문목판	1584	8	1판4장	가야산 개심사	없음	·현존 <계초심학인문> 중 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목판
6	서산 개심사 몽산화상육도보설목판	1584	6	1판4장	가야산 개심사	없음	·현존<몽산화상육도보설> 중에서 완전한 목판
7	서산 개심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목판	1577	26	1판2장	가야산 보원사	없음	·현존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완전한 목판
8	서산 개심사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목판	1621	5	1판4장	상왕산 가야사	없음	·현존 <성관자재구수육자 선정>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완전한 목판
9	서산 개심사 오대진언(수구즉득다라니)목판	1604	9	1판4장	가야산 강당사	없음	·현존 <오대진언(수구즉득 다라니)> 중에서 가장 오 래되고 완전한 목판

한편 제외대상 4종은 <표2>와 같다.

<표2> 국가문화재 지정 제외대상의 목판 4종

구분	명칭(소장 목판)	간행년	수량	형태	간행지	비고	제외이유
10	공주 갑사 고봉화상선요목판	1565	12	1판4장	불명산 쌍계사	2판(8장) 결판	1501년목판 (해인사 완판)
11	공주 갑사 몽산화상육도보설목판	1568	5	1판4장	불명산 쌍계사	1판(4장) 결판	1584년목판 (개심사 완판)
12	서산 개심사 고봉화상선요목판	1571	13	1판4장	가야산 보원사	6장(2판?) 결판	1501년목판 (해인사 완판)
13	서산 개심사 제반문목판	1566	26	1판4장	가야산 보원사	1판(3장) 결판	목판의 보존상 태 최하등급

붙임 : 세부 안전내용 각 1부.

3.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가. 검토사항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 수 량 : 245판 (缺)
- 규 격 : 광곽 23.3×33.5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1년(명종 16)
- 제작자 : [鍊板] 智弘 / [刻手] 禪衍, 學軒, 一訓, 彦奇, 自安, 達衍, 玉井, 安京, 玄敏, 文玉, 能守, 空紙, 性玄 / [校正] 惠全, 許○補, 利德, ○緝

라.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1561년(명종 16)에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전 246판 중에서 권3의 15-16장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245판이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나 일부 목판에서 곰팡이와 균열로 인한 글자 손상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인자본계열의 <묘법연화경> 목판 중에서 현전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랜 것이다.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50년	왕실	×	활자본(갑인자)
1493년	황해 자비령사	×	
1493년	충청 무량사	×	
1536년	평안 빙발암	×	
1536년	전라 서대사	×	
1537년	충청 보광사	×	
1539년	경상 영각사	×	
1545년	경상 신흥사	×	
★1561년	전라 천관사	○	해남 대흥사(결판 1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판명	妙法蓮華經
저자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발행사항	全羅道 長興地 支提山 天冠寺, 明宗 16年(1561)
형태사항	匡郭 23.3×33.5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卷7 刊記 : 嘉靖四十年七月日全羅道長興地支提山天冠寺開刊 版心題 : 妙法

○ 소장판 목록

弘傳序 : (1, 2)

要解序 : (1, 2)

卷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卷2-1)

卷2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卷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卷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3) (28, 5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卷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卷6-1)

卷6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卷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2,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판 2장 결 : [권3] 15, 16

○ 구성 및 내용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 금강경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계환의 주해본 법화경이 크게 유행하였다. 본 목판은 1561년(嘉靖 40) 전라도 장흥지(長興地) 지제산(支提山) 천관사(天冠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해남 대흥사에 일부 유실판을 제외하고 245판이 소장되어 있다.

본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안평대군 용(瑢), 금성대군 유(瑜) 등이 발원하여 활자로 새긴 초주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목판으로 복각한 것이다. 체재를 살펴보면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 변상은 없고 홍전서와 요해서를 두었다. 본문은 「서품(序品)」부터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총 28품이 각각의 권에 2-6품씩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권은 권수제 옆으로 계환(戒環) 해(解)임을 밝히고 1행에 20자의 본문을 적었는데, 계환의 주해는 한 글자를 내려서 1행에 17자로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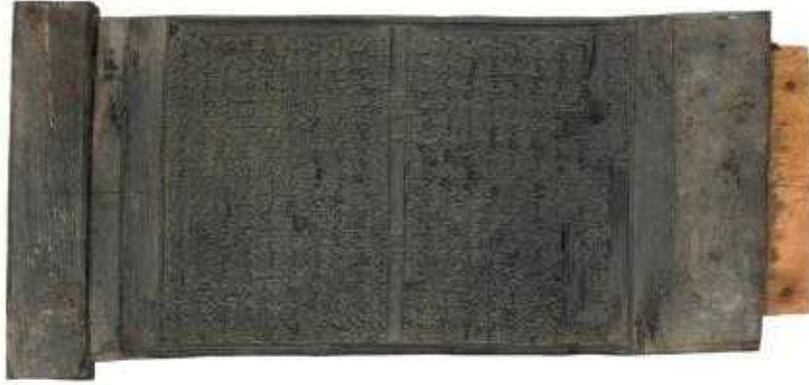
○ 조사내용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일부 유실판이 있긴 하지만, 권1부터 권7까지 각 권마다 35판 내외로 모두 245판이 전해지고 있다. 목판은 한 면에 1장씩 새겨져 1판에 총 2장을 판각하였으며, 대부분 순방향으로 새겼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합한 형태이다. 유일하게 권1의 장차 (1, 2)판의 우측 마구리가 결손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24.9cm, 가로 49.1cm 내외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3.3cm, 가로 33.5cm이다. 절반이 넘는 판의 광곽변란 좌우 하단으로 박만세(朴万世), 한강동(閑江同) 등과 같은 시주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반곽의 행자수는 10행18자로 본 목판이 초주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복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판심부를 살펴보면,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월간본과 다르게 간혹 일엽·삼엽화문어미도 섞여서 나타난다. 판심제는 ‘妙法’으로 권마다 ‘卷一’, ‘卷二’ 등의 권차를 판심제 밑에 추가하였고, 하단에 장차를 양각하였다.

본 목판은 권7의 마지막 장차 60에 새겨진 ‘嘉靖四十年七月日全羅道長興地支提山天冠寺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1561년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수는 선연(禪衍), 영오(令悟), 학헌(學軒), 일훈(一訓) 등이 참여하였고, 연판은 지홍(智弘)이 담당하였다.

목판은 1판을 제외하고 마구리가 잘 남아있어 대체로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판에서 곰팡이와 균열로 인한 글자 손상이 확인된다.



[도 1] 묘법연화경 권1 _ 1장



[도 2] 묘법연화경 권3 _ 1장



[도 3] 묘법연화경 권7 _ 60장 간기 확대

4. 고봉화상선요 목판(高峰和尚禪要 木板)

가. 검토사항

‘고봉화상선요 목판(高峰和尚禪要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공주 갑사 ‘고봉화상선요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봉화상선요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 수 량 : 12판 (2판8장 결)
- 규 격 : 광곽 18.6×26.0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5년(명종 20)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2판(8장) 결판. 1501년 목판(해인사 완판)이 있음.

<고봉화상선요>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399	지리산 덕기사	×	
1501	가야산 봉서사	○	합천 해인사(14판 완판)
1525	문경 심원암	×	
1539	지리산 남대암	×	
1545	전라 서대사	×	
☆1565	은진 쌍계사	○	공주 갑사(2판 결판)
1571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2판? 결판)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高峰和尚禪要
저 자	持正(宋) 錄, 洪喬祖(元) 編
발행사항	淸洪道 恩津地 佛名山 雙溪寺, 明宗 20年(1565)
형태사항	匡郭 18.6×26.0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四年乙丑秋淸洪道恩津地佛名山雙溪寺開板 版心題 : 要

○ 소장판 목록

序 : (1· 2, 跋-1· 跋-2)

(1 · 2, 4 · 3) (5 · 6, 8 · 7) (9 · 10, 12 · 11) (13 · 14, 16 · 15) (21 · 22, 24 · 23) (25 · 26, 28 · 27) (33 · 34, 36 · 35) (37 · 38, 40 · 39) (41 · 42, 44 · 43) (45 · 46, 48 · 47) (49, ×)

※ 2판 8장 결 : 17, 18, 19, 20, 29, 30, 31, 32

○ 구성 및 내용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는 중국 송·원교체기의 고승인 고봉 원묘(高峰原妙, 1238-1295)의 어록을 그의 시자(侍子) 지정(指正)이 기록한 것으로, 1295년 재가제자 홍교조(洪喬祖)가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중기 이후 강원의 사집과(四集科) 중 한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활발하게 유통, 간행되었다. 본 목판은 1565년(嘉靖 44) 은진(恩津) 불명산(佛名山) 쌍계사(雙溪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는 총 12판이 감사에 전하고 있다.

『고봉화상선요』는 일명 『선요(禪要)』라고도 불리며, 감사 소장 목판은 1501년 해인사의 암자 봉서사(鳳棲寺)에서 간행한 8행 18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다. 본 목판은 서문과 발문 각각 2장과 함께 일부 결손판이 있는 본문 41장을 전후로 새겨 총 12판에 45장이 전해지고 있다.

권수에 홍교조의 서문과 권말에 주영원(朱穎遠)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본문은 현재 결손된 장차가 있어 완전한 구성은 아니며, 「개당보설(開堂普說)」 1편을 비롯하여 「시중(示衆)」이 9편, 「결제시중(結制示衆)」 3편, 「해제시중(解制示衆)」 1편 등 총 19편(4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서사본(1501년)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발문은 8행16자에 판심은 ‘要序’와 ‘要跋’이고, 본문은 8행18자에 판심은 ‘要’이다. 권미제 옆으로 종장(終張)인 49장에는 ‘主上三殿壽萬歲’의 축원문과 함께 목판의 판각시점과 장소, 시주자를 기록한 간기판 1장이 수록되어 있다.

○ 조사내용

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봉화상선요』는 각 면에 각각 2장씩 총 4장이 새겨져 있다. 장차는 ‘要序’ 1-2장, ‘要’ 1-49장, ‘要跋’ 1-2장의 순서로 판각되어 있으나 본문 17~20장, 29~32장에 해당하는 2판이 결손된 상태이다.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배치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형태이며, 마구리를 제외한 목판의 전체크기는 세로 18.5cm, 가로 63.5cm에 이른다. 마구리는 일직선으로 처리된 장부에 나무못을 박아 장부와 결구하였는데 대부분 장부가 마구리 측면으로 노출되지 않고 막혀있는 형태이다. 또한, 마구리 측면에는 ‘要二’ 등의 약칭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고 전체 12판 가운데 일부판은 한쪽 또는 양쪽의 마구리가 결손된 상태이다. 목판의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7.4cm, 가로 26.0cm이다. 판심부는 상하하향흑어미에 상하대흑구이다. 서문과 발문은 반곽 8행16자이고, 본문은 8행18자이다. 판심제는 ‘要序’, ‘要’, ‘要跋’이며, 하단 흑어미 아래에 장차를 표시하였다.

『고봉화상선요』는 권미제 끝에 이어진 ‘嘉靖四十四年乙丑秋清洪道恩津地佛名山雙溪寺開板’의 간행 기록을 통해 1565년(嘉靖 44) 가을 충청도 불명산에 위치한 쌍계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판각 작업에는 학교(學敎)를 비롯한 승려와 속인 등 약 45명의 인물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판각을 담당할 각수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시주질 말미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1567)』, 『월인석보(1569)』 등에 각수로 참여한 혜순(惠淳)이 확인되어 판각자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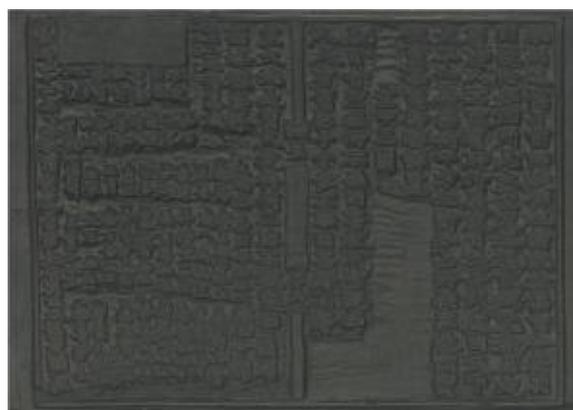
대부분의 목판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일부 목판에서 마구리가 결손되고 충해 및 균열이 확인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고봉화상선요 _ 1·2장



[도 2] 고봉화상선요 서_ 1장



[도 3] 고봉화상선요 _ 49장

5.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

가. 검토사항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공주 갑사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 수 량 : 5판 (1판4장 결)
- 규 격 : 광곽 19.0×27.7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8년(선조 1)
- 제작자 : [鍊板] 何○山兩主 / [刻手] 惠淳, 正仁, 智軒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1판(4장) 결판. 1584년 목판(개심사 완판) 현전.

<몽산화상육도보설>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 목판	비고
1497	전라 진안 현암	×	
1522	충청 무량사	×	
1536	지리산 신흥사	×	
1539	안동 광흥사	×	
1541	안변 석왕사	×	
1565	황해도 석두사	×	
1566	평안도 안국사	×	
1566	전라 고산 안심사	×	
☆1568	충청 [쌍계사]	○	공주 갑사 1판(4장) 결판
1568	보은 법주사	×	
1584	가야산 개심사	○	서산 개심사(완판)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蒙山和尚六道普說
저 자	蒙山(元) 著
발행사항	[刊行處 未詳], 宣祖 1年(1568)
형태사항	匡郭 19.0×27.7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6行13字,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주기사항	刊記 : 隆慶二年十二月日忠清道……寺開刊 版心題 : 普

○ 소장판 목록

(1 · 2, 4 · 3) (5 · 6, 8 · 7) (9 · 10, 11 · 12) (17 · 18, 20 · 19) (21 · 22, 24 · 23) ※ 1판 4장 결 : 13, 14, 15, 16

○ 구성 및 내용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은 원(元)의 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본 목판은 1568년(隆慶 2) 충청도(忠淸道) 은진현(恩津縣) 쌍계사(雙溪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5판이 소

장되어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을 저술한 몽산 덕이는 남송(南宋)과 원대에 활동한 임제종(臨濟宗) 승려이다. 그는 1295년부터 고려인과 교류한 이래로 수선사(修善社)의 만항(萬恒, 1249-1319)이나 가지산문(迦智山門)의 혼구(混丘, 1251-1322)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고려의 선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몽산 덕이의 대표적인 저술로 육도윤회와 사성(四聖)을 요체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육도(六道)란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 등으로 인간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을 일컫는다. 여기에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佛) 등의 사성을 더해 십계(十界)를 설하고 있다. 특히, 몽산은 육도 중에서 인도(人道)가 가장 뛰어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육도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다른 경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중심내용은 모든 중생들이 범부(凡夫)의 자리를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 조사내용

갑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 목관은 한 면에 2장씩 전·후면에 4장이 판각된 형태로 총 5판에 20장이 전하고 있다. 권수제는 ‘蒙山和尚六道普說’이며 마지막 24장에는 간기와 시주질 등이 새겨져 있다.

목관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형태로 장부에 마구리를 따로 제작하여 끼운 형태이며, 5-8장과 9-12장 2판을 제외한 나머지 판은 모두 좌우 마구리가 결손되었다. 목관의 크기는 마구리를 제외하고 세로 19.4cm, 가로 27.9cm이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9.0cm, 가로 27.7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6행13자이며, 판심부의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 형태에 판구에는 상하대흑구가 있다. 판심제는 ‘普’로 모든 판이 동일하다.

목관은 마지막 24장의 간행기록인 ‘隆慶二年十二月日忠淸道……寺開刊’을 통해 1568년 12월에 개판되었으며, 승려와 시주자 등 20여명이 개판불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기의 끝부분이 인위적으로 마모되어 정확한 지역과 사찰은 확인할 수 없지만, ‘雙溪寺鄭元希兩主’의 시주명 등을 통해 충청도 은진현 쌍계사에서 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판식(板式)은 조선시대에 개판된 약 21종의 판본 가운데 1497년 전라도 진안(鎭安) 용출산(聳出山)에서 개판된 현암본(懸庵本)과 변란, 계선, 행자수, 판심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이를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보존상태는 충해, 균열없이 양호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마구리가 결손되어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몽산화상육도보설 _ 1·2장



[도 2] 몽산화상육도보설 _ 1장



[도 3] 몽산화상육도보설 _ 24장

6.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가. 검토사항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아산 세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 수 량 : 13판 (缺)
- 규 격 : 광곽 18.2×29.2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3년(명종 18)
- 제작자 : [鍊板 · 刻手] 鄭世隣 / [副刻手] 惠禪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545년에 오응성(吳應星)이 언해한 판본을 모본으로 간행되었다. 세심사 소장본은

1563년(명종 18)에 아산의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오음성의 발문은 없다. 전 14판 중에서 제2, 12장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의 13판이 아산 세심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는 약간의 균열이 보이며 마구리가 결손된 판이 많다.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2002.8.10)로 지정되어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45	吳應星 개판본	×	원간본
1553	화장사	×	
★1563	신심사	○	아산 세심사(결판 1판)
1563	송광사	×	
1564	패엽사	×	
1567	불명산 쌍계사	○	결판 2판
1573	홍복사	×	
1592	희방사	×	
1609	동화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淸洪道 牙山地 桐林山 神心寺, 明宗 18年(1563)
형태사항	匡郭 18.2×29.2cm 四周單邊,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混用魚尾, 上下大黑口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二年癸亥暮春既望漕溪訥菴書于神心丈室...淸洪道牙山地桐林山神心寺留板 版心題: 恩

○ 소장판 목록

(1, 3) (4, 16) (5, 13) (6, 14) (7, 8) (9, 10) (11,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施主秩, ×)

※ 1판 2장 결 : 2, 12

○ 구성 및 내용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경으로 줄여서 『부모은중경』, 『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은 언해본으로, 1563년(嘉靖 42)에 개판되었고, 13판이 전하고 있다.

세심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은 1545년(嘉靖 元年)에 오응성(吳應星)에 의해 언해된 판본을 모본으로 제작되었다. 세심사본에는 오응성 발문은 누락된 채 경전이 끝난 바로 뒤에 간략한 발문이 적힌 간기판이 전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서분(序分), 본론인 정종분(正宗分), 결론인 유통분(流通分)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분은 부처가 사위국(舍衛國) 왕사성(王舍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보살 마하살과 비구 삼만 팔천명과 함께 있었다는 짧은 글이다. 정종분은 경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강론의 동기를 담은 「보은인연(報恩因緣)」,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담은 「역진은애(歷陳恩愛)」, 불효의 죄를 설파한 「광설업난(廣說業難)」, 효·불효에 따른 인과를 다룬 「과보현응(果報顯應)」의 4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통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팔부서원절(八部誓願節)」, 「불시경명절(佛示經名節)」, 「인천봉지절(人天奉持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수록하였다. 변상은 본문 내용에 따른 삽도 형식이며, 여래정례도(如來頂禮圖) 1장면, 부모십은도(父母十恩圖) 10장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을 묘사한 9장면, 효도하여 아버지옥(阿鼻地獄)에서 하늘에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1장면 등 총 21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卷頭)의 서명은 한자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아래로 ‘부모의은갑니·경이라’고 언해하고 있다. 권수제(卷首題) 다음 행부터 한자의 본문이 시작되며, 이어서 한단을 내려 언해를 첨부하고 있다. 언문에는 성점(聲點)이 간헐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 조사내용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은 시주질을 포함해 총 13판25장이 전해진다.

목판은 각 면에 1장씩 새겨져 하나의 목판에 총 2장씩 판각되었다. 판은 가로로 긴 형태로, 전체크기는 각 목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세로 19.3cm, 가로 45.8cm 정도이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판면과 연결되는 상단과 하단에 ‘ㄱ’자형 장식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2cm, 가로 29.2cm이다. 경전의 내용에 따라 변상을 삽도형식으로 배치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10행18자로 새겼다. 판심체는 약명인 ‘은’이고, 판심부는 상하내향혼용어미에 상하대흑구이다.

광곽의 외면에는 대부분 칸을 구획하지 않고, 시주자를 양각으로 새겼다.

마지막 시주질 판의 간행 기록을 통해 1563년(嘉靖 42) 아산(牙山)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판되었다. 신심사는 세심사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며, 발문에는 비구 성회(性會)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화주(化主)가 되어 판각하고 70부를 인출하여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판각에 참여한 시주자 중에는 16세기 중반 명종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후원하에 도대선사(都大禪師)에 올라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보우(普雨, 1509-1565)에 관한 기록이 있어 당시 상당한 규모의 불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지는 간행관련 소임기록을 통해 연관 및 각수는 정세린(鄭世隣), 부각수는 혜선(惠禪)이 소임을 맡아 작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외에도 재목(梓木), 경지(經紙), 칠판(柒板)의 시주자들이 열거되어 있다.

목판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균열이 보이며 마구리가 결손된 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_ 1장



[도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_ 시주질

7.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가. 검토사항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묘법연화경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111판 (1판4장 결)
- 규 격 : 광곽 18.9×27.8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5년(명종 20)
- 제작자 : [鍊板] 金孟孫, 惠學 / [書寫] 玉蟾 /
[刻手] 玲玉, 守仁, 惠輝, 宝敬, 空紙, 万熙, 性安, 玉淨, 性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443년(세종 25)에 성달생이 정서하여 간행한 고산 화암사판을 번각한 것이다. 권미에 있는 혜능(慧能)의 발문을 통해 1565년(명종 20)에 충청도 서산 의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 112판중에서 41-44장에 해당되는 1판이 결판되어 서산 개심사에는 111판이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목판은 충해와 균열로 인해 글자가 손상되어 있고, 마구리가 결손된 것도 약 30여개나 된다.

성달생서계 <묘법연화경>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05	고산 안심사	×	
1417	전라 문수사	×	
1422	경기 대자암	×	
1436	경상 동화사	×	
1443	전라 화암사	×	
1472	전라 중대사	×	
1477	전라 화암사	×	
1539	황해 심원사	×	
1543	경기 정수사	○	강화 전등사(결판 1판)
	황해 석두사	×	
1545	강원 표훈사	×	
	전라 안심사	×	
	전라 영원사	×	
1554	황해 귀진사	×	
1559	황해 연봉사	×	
1561	경상 희방사	×	
1564	황해 중암	×	
1565	충청 복천사	×	
★1565	충청 보원사	○	서산 개심사(결판 1판)
1570	경상 불국사	×	
	전라 용천사	×	
1572	경상 대승사	×	
1574	강원 심원사	×	
	경상 불국사	×	
	충청 청룡사	×	
1575	강원 장안사	×	
1578	경기 서봉사	×	
1584	전라 실상사	×	
1586	전라 흥복사	×	
1604	경상 능인암	○	하동 쌍계사(112판 완판)
1613	충청 청룡사	×	
1622	경기 청계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妙法蓮華經
저 자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발행사항	清洪道 瑞山地 伽倻山 普院寺, 明宗 20年(1565)
형태사항	匡郭 18.9×27.8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四年乙丑季夏清洪道瑞山地伽倻山普院寺留板 版心題 : 法

○ 소장판 목록

變相 : (0 · 0, 弘傳序-2 · 弘傳序-1)

要解序 : (卷1-2 · 1, 卷1-4 · 卷1-3)

卷1 (6 · 5, 7 · 8) (10 · 9, 12 · 11) (14 · 13, 15 · 16) (17 · 19, 18 · 20) (22 · 21, 24 · 23) (25 · 26, 28 · 27) (30 · 29, 31 · 32) (33 · 34, 35 · 36) (37 · 38, 39 · 40) (45 · 46, 47 · 48) (50 · 49, 51 · 52) (54 · 53, 56 · 55) (57 · 58, 59 · 60) (61 · 62, 施主秩 · 卷2-1)

卷2 : (2 · 3, 4 · 5) (7 · 6, 9 · 8) (10 · 11, 12 · 13) (15 · 14, 16 · 17) (19 · 18, 21 · 20) (23 · 22, 24 · 25) (26 · 27, 28 · 29) (33 · 30, 31 · 32) (35 · 34, 36 · 37) (39 · 38, 41 · 40) (43 · 42, 44 · 45) (47 · 46, 49 · 48) (50 · 52, 51 · 53) (54 · 55, 56 · 57) (58 · 59, 61 · 60) (62 · 64, 63 · 65) (卷3-1· 66, 卷3-2 · 卷3-3)

卷3 : (5 · 4, 6 · 7) (9 · 8, 11 · 10) (12 · 13, 15 · 14) (17 · 16, 18 · 19) (20 · 21, 23 · 22) (24 · 25, 27 · 26) (29 · 28, 31 · 30) (32 · 33, 35 · 34) (36 · 37, 38 · 39) (40 · 42, 41 · 43) (44 · 45, 46 · 47) (49 · 48, 50 · 51) (52 · 53, 54 · 55) (56 · 57, 施主秩 · 58)

卷4 : (1 · 2, 4 · 3) (6 · 5, 8 · 7) (9 · 10, 11 · 12) (13 · 14, 16 · 15) (17 · 20, 19 · 18) (22 · 21, 24 · 23) (26 · 25, 27 · 28) (30 · 29, 31 · 32) (33 · 34, 35 · 36) (37 · 38, 39 · 40) (42 · 41, 44 · 43) (46 · 45, 48 · 47) (49 · 50, 51 · 52) (53 · 54, 55 · 56) (57 · 58, 60 · 59)

卷5 : (1 · 2, 4 · 3) (8 · 5, 6 · 7) (10 · 9, 11 · 12) (13 · 14, 15 · 16) (18 · 17, 19 · 20) (21 · 24, 22 · 23) (25 · 28, 26 · 27) (29 · 30, 32 · 31) (35 · 33, 34 · 36) (37 · 38, 39 · 40) (41 · 42, 44 · 43) (46 · 45, 48 · 47) (49 · 50, 51 · 52) (54 · 53, 56 · 55) (施主秩 · 卷6-3, 卷6-2 · 卷6-1)

卷6 : (4 · 5, 6 · 7) (9 · 8, 11 · 10) (12 · 13, 14 · 15) (17 · 16, 19 · 18) (20 · 21, 22 · 23) (24 · 25, 27 · 26) (30 · 28, 29 · 31) (33 · 32, ×) (34, 35) (36 · 39, 38 · 37) (40, 42) (41 · 43, ×) (44 · 45, 46 · 47) (48 · 49, ×) (50 · 51, ×) (52 · 53, ×) (54, 55) (56 · 卷7-1, 卷7-2 · 卷7-3)

卷7 : (4 · 7, 5 · 6) (8 · 9, 11 · 10) (12 · 13, 14 · 15) (16 · 19, 17 · 18) (23 · 20, 21 · 22) (27 · 24, 25 · 26) (28 · 29, 30 · 31) (32, 33) (35 · 34, ×) (36 · 37, 44) (39 · 38, 53 · 54) (43 · 40, ×) (41 · 42, ×) (45, 46 · 47) (48, 49) (50, 52 · 51)

※ 1판 4장 결 : 권1(41, 42, 43, 44)

○ 구성 및 내용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며, 일반적으로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 한역본의 계환 주해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본 목판은 1565년(嘉靖 44) 서산의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院寺)에서 판각된 성달생서본계(成達生書本系) 복각판으로, 현재 111권이 개심사(開心寺)에 전하고 있다.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조선초기 1443년(正統 8) 성달생이 정서하여 새긴 고산 화암사판을 저본으로 1565년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복각한 것이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원문에 계환의 주해(註解)가 붙은 판본으로 모두 7권 28품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체제는 변상도를 시작으로 홍전서, 요해서, 본문 1-7권, 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별로 장수를 보면 변상과 홍전서, 요해서가 모두 5장이고 권1-63장, 권2-66장, 권3-59장, 권4-60장, 권5-57장, 권6-56장, 권7-52, 발문·연화질 2장으로 총 41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서품제일(序品第一)」부터 「보현보살권발품제이십팔(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까지 모두 28품이 각각의 권에 2-6개씩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권과 3-7권말에 시주질을 새겼으며, 일부 목판은 광곽의 좌·우측 하단에도 시주자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이 모두 끝나고 덧붙인 권7 (53, 54)장에는 혜능(慧能)이 찬한 발문에 이어 개판기(開板記)와 왕실축원문 그리고 각수·연판 등 판각과 관련된 직책 및 실무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조사내용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총 111권에 419장이 판각되어 있다. 대부분 한 면에 2장을 새겨 1판에 4장씩을 판각하였는데 2장 혹은 3장을 새긴 예도 있다. 현재 개심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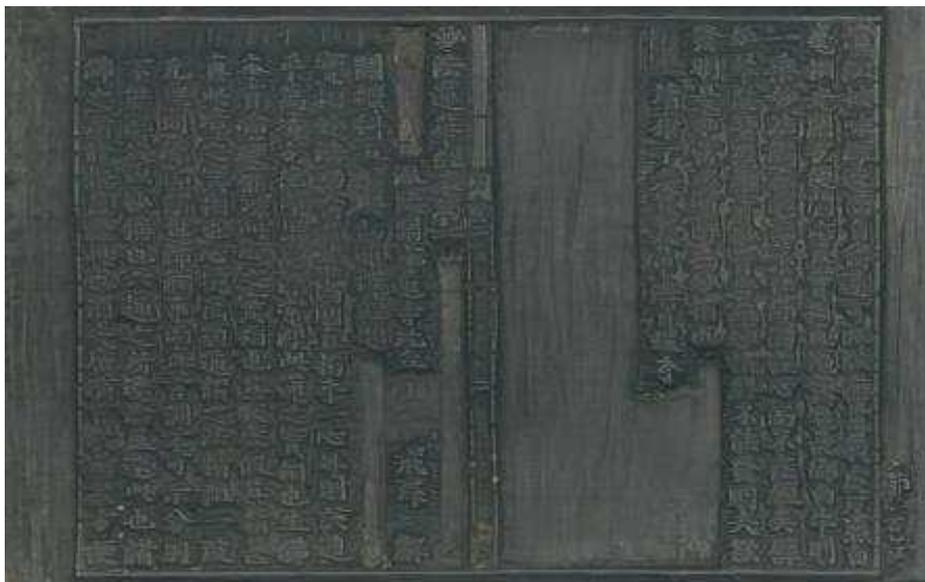
는 105권이 소장되어 있고, 본사인 수덕사의 근역성보관에 6권이 기탁된 상태이다.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보인다. 마구리는 별도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측면에는 권장차를 음각으로 새겨 쉽게 판종과 장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판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 세로 23.2cm, 가로 84.7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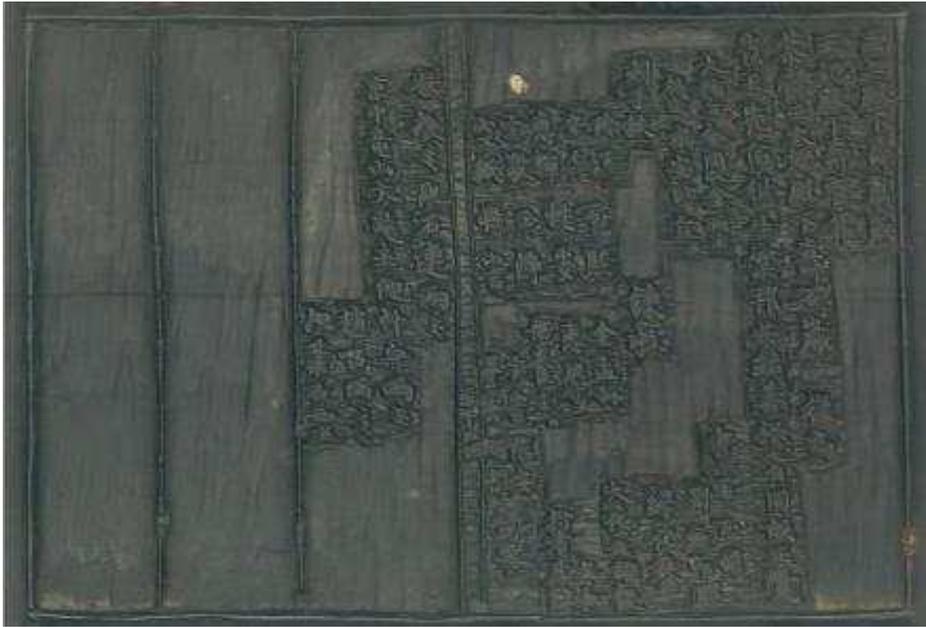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9cm, 가로 27.8cm이다. 반곽에 행자수는 10행20자이며, 계환의 주해는 한 단을 내려 적고 있다. 판심부는 대체로 흑구와 어미가 없으나 일부 판에서는 상대흑구와 상하향흑어미가 보이기도 한다. 판심제는 ‘法’이고 하단에 장차를 새겼는데, 권의 마지막장은 장차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7권 말미에 있는 혜능(慧能) 발문의 간행기록을 통해 본 목판이 1565년(嘉靖 44)에 충청도 서산 가야산의 보원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의 대부분에서 충해 및 균열로 인해 마구리나 글자가 손상된 모습이 확인되며, 마구리가 결손된 목판도 약 30여판에 이르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묘법연화경 권1 _ 1장 · 요해서1장



[도 2] 묘법연화경 권1 _ 1장



[도 3] 묘법연화경 권7 _ 54장

8. 계초심학인문 목판(誠初心學人文 木板)

가. 검토사항

‘계초심학인문 목판(誠初心學人文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계초심학인문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계초심학인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8판 (完)
- 규 격 : 광곽 15.4×23.3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제작자 : [鍊板 兼 刻手] 妙淳 / [刻手] 廣惠, 妙淳, 戒禪

라.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현재 소장 사찰인 가야산 개심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동일한 서명의 다른 판본들과 마찬가지로 「계초심학인문」 외에 「발심수행장」, 「자경서

(自警序)」,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몽산화상법어약록」 등이 함께 편성되어 있다. 전 8판(32장)으로 결판 없이 완전하게 전한다. 총해나 균열은 없으나 일부 목판은 마구리가 결손 되어 장식의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계초심학인문> 목판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25	대광사	×	
1536	신흥사	×	
1540	석왕사	×	
1563	광흥사	×	
1563	쌍봉사	×	
1566	보현사	×	
1567	쌍계사	×	
1570	무위사	×	
1572	귀진사	×	
1572	용천사	×	
1572	표훈사	×	
1574	월정사	×	
1579	신흥사	×	
1583	덕주사	×	
★1584	개심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03	능인암	○	하동 쌍계사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誠初心學人文
저 자	知訥(高麗) 外 著
발행사항	忠淸道 瑞山地 伽耶山 開心寺, 宣祖 17年(1584)
형태사항	匡郭 15.4×23.3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6字, 上下內向混用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十二年甲申八月日忠淸道瑞山地伽耶山開心寺新開刊 版心題 : 誠, 章, 自, 法, 六

○ 소장판 목록

(1 · 2, 3 · 4) (5 · 6, 32 · 7) (8 · 9, 10 · 11) (12 · 13, 14 · 15) (16 · 18, 17 · 19) (21 · 20, 22 · 23) (24 · 25, 27 · 26) (28 · 29, 30 · 31)

○ 구성 및 내용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은 고려 지눌(知訥,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자경서(自警序)」,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등 여말선초에 활동한 고승들의 법어(法語)를 한데 묶어 간행하였다. 본 목판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8판이 전해지고 있다.

『계초심학인문』은 보조국사 지눌이 1205년(開熙 1)에 저술한 것으로 불교수행의 초보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미과(沙彌科)의 이력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단독으로 간행하기보다는 원효의 「발심수행장」, 야운의 「자경서」 등과 묶여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으로 합본되거나 또는 여기에 선사들의 법어를 첨부하여 『계초심학인문』이라는 표제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본 목판도 합본의 형태로 판각되었는데, 「계초심학인문」을 포함하여 신라말 원효(元曉)가 지었다고 전하는 「발심수행장」, 고려 말에 야운 각우(野雲覺牛)가 저술한 「자경서(自警序)」,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하는 「환산정응선사시몽산화상법어(院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그리고, 중국 원대의 승려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저술한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순으로 장차가 이어진다.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현재 8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면에 2장씩 판각되어 총 8판에 32장이 새겨져 있다. 1-4장이 「계초심학인문」 이고, 5-7장이 「발심수행장」, 8-16장까지 「야운자경서」, 17-21장까지 5대 법어, 21장부터 32장까지 「몽산화상법어약록」이 수록되어 있다.

목판은 각 면에 2장씩 새겨 하나에 목판에 모두 4장씩 판각되었는데 이로 인해 목판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보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와 결구하여 철로 된 장석(裝錫)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일부 판은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고 장석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목판의 크기는 각 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구리를 제외한 최대크기는 세로 16.2cm, 가로 64.0cm에 이른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5.4cm, 가로 23.3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8행16자이며, 「몽산화상법어약록」은 9행17자로 새겼다.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와 화문어미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판심은 각 저술별로 ‘誠’, ‘章’, ‘自’, ‘法’, ‘六’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32장의 개판기를 살펴보면, 1584년(萬曆 12) 8월 충청도(忠淸道) 서산지(瑞山地) 가야산(伽耶山) 개심사(開心寺)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 있는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도 같은 해 9월에 개판하였고, 연판 겸 각수도 모두 같아 동일한 장인집단이 연속해서 개판에 참여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목판은 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마구리가 결손되어 장석의 부재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마구리 및 장석 등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계초심학인문 _ 1·2장



[도 2] 계초심학인문 _ 1장 확대



[도 3] 계초심학인문 _ 32장

9.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道家論辨牟子理惑論 木板)

가. 검토사항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道家論辨牟子理惑論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4판 (缺)
- 규 격 : 광곽 16.6×22.6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0년(선조 13)
- 제작자 : [書寫] 崔豪世 / [開刊] 妙敬, 惠嘗, 廣惠, 太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0년(선조 13)에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간행되었다. 이 도가논변모자리혹론(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또는 『리

혹론(理惑論)』라고도 한다. 전 5판중에서 제1장 등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서산 개심사에는 4판이 전한다. 그런데 마지막 제17장은 『달마대사관심론』 속에 편입 판각되어 있다. 목판은 전체적으로 흰개미가 목판 내부로 들어간 흔적이 확인된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80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결판 1판)
1636	영취산 통도사	×	
1638	보성 대원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道家論辨牟子理惑論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伽耶山 普願寺, 宣祖 13年(1580)
형태사항	匡郭 16.6×22.6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7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八年庚辰四月日新刊于伽耶山普願寺 版心題 : 牟子

○ 소장판 목록

(3 · 2, 14 · 13) (4 · 5, 7 · 6) (8, 15 · 16) (9 · 11, 10 · 12)

※ 1판 1장 결 : 1

※ 17장 : 『達磨大士觀心論』에 편입

○ 구성 및 내용

『도가논변모자리혹론(道家論辨牟子理惑論)』은 한(漢)나라 사람으로 전하는 모자

(牟子)가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쓴 글로, 일반적으로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혹은 『리혹론(理惑論)』로 불린다. 본 목판은 1580년(萬曆 8)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4판이 전해진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중국 양(梁)나라 승우(僧祐, 445-518)에 의해 『홍명집(弘明集)』 1권에 편입되어 간행되었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초조(初雕) 및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에도 『홍명집』으로 포함되었으며, 단독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시대 중엽 이후로 여겨진다.

본문은 37편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내용에 따라 불교의 연원과 역사, 불교 교리, 불교 윤리, 불교 풍속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질문은 불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비판한 것으로서 불경(佛經)이 지나치게 광대하다는 지적, 당시 승려들의 행동과 불교에서 주장하는 청정(淸淨)과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 도가의 신선술(神仙述)과 불도와의 관계, 불경에 나오는 부처의 모습인 32상 80종호에 대한 사람들의 시비, 불교의 출가와 효(孝)로 대표되는 유교적 인륜과의 문제, 불교가 외래 종교인만큼 중국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현재 1장은 유실되어 총 4판이 전해지고 있으며, 마지막 17장은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論)』 목판의 종장인 22장과 함께 새겨져 있다.

목판은 대부분 한 면에 2장씩 새겨졌기 때문에 좌·우로 긴 장방형이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하였으며, (4· 5, 7· 6)판은 마구리가 결손되었는데, 장부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마구리를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구리를 제외한 목판의 전체크기는 세로 약 19.0cm, 가로 75.9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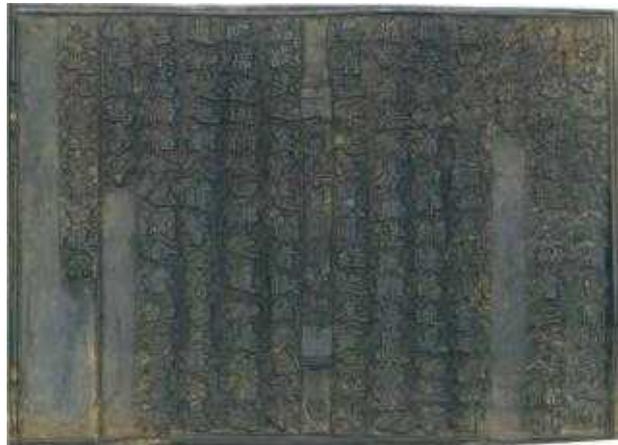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16.7cm, 가로 22.7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7행15자이고,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에 흑구(黑口)는 새기지 않았으며, 판심제는 ‘牟子’이고, 하단에 장차를 기록하였다.

본 목판의 개판기록은 『달마대사관심론』 22장과 나란히 새겨진 17장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1580년(萬曆 8) 가야산 보원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각을 담당 한 각수 가운데 광혜(廣惠)는 개심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1577)과 『달마대사혈맥론(達磨大師血脈論)』 (1579)의 판각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가야산 맞은편에 자리한 개심사에서 1584년 개판한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에도 각수로 참여한 점이 확인되므로 당시 양 사찰에서 동일한 장인집단이 활발하게 목판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은 마구리가 결손된 1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흰개미가 뚫고 목판 내부로 들어간 흔적이 확인된다. 마구리 및 충해방지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도 1] 도가론변모자리혹론 _ 3·2장



[도 2] 도가논변모자리혹론 _ 16장



[도 3] 도가논변모자리혹론 _ 17장

10. 고봉화상선요 목판(高峰和尚禪要 木板)

가. 검토사항

‘고봉화상선요 목판(高峰和尚禪要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고봉화상선요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봉화상선요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13판 (缺)
- 규 격 : 광곽 17.8×26.2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71년(선조 4)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6장(2판?) 결판. 1501년목판(해인사 완판)

<고봉화상선요>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399	지리산 덕기사	×	
1501	가야산 봉서사	○	합천 해인사(14판 완판)
1525	문경 심원암	×	
1539	지리산 남대암	×	
1545	전라 서대사	×	
1565	은진 쌍계사	○	공주 갑사(2판 결판)
☆1571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2판? 결판)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高峰和尚禪要
저 자	持正(宋) 錄, 洪喬祖(元) 編
발행사항	普願寺, 宣祖 4年(1571)
형태사항	匡郭 17.8×26.2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隆慶五年辛未三月日普願寺開刊 版心題 : 要

○ 소장판 목록

序 : (2 · 1, 跋-2 · 跋-1)
 (6 · 5, 7 · 8) (9 · 12, 11 · 10) (13 · 30 · 49, 42 · 40 · 17) (14, 15)
 (16 · 19, 17 · 18) (20 · 44, 29 · 28) (21 · 37 · 36, ×) (22 · 23, 27 · 26)
 (24, 48 · 47 · 46) (31 · 25, ×) (32 · 39, ×) (38 · 34 · 33, 45 · 43)
 ※ 6장 결 : 1, 2, 3, 4, 35, 41

○ 구성 및 내용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는 중국 송원교체기 고승인 고봉 원묘(高峰原妙, 1238-1295)의 어록에서 일부를 발취한 책으로, 그의 시자(侍子) 지정(指正)이 기록한 것을 재가제자 홍교조(洪喬祖)가 편하여 1295년에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강원의 사집과(四集科) 중 한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이 간행되었다. 본 목판은 1571년(隆慶 5)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13판이 소장되어 있다.

『고봉화상선요』의 권수제는 ‘高峰和尚禪要’로 일반적으로는 『선요(禪要)』라 불린다. 개심사 소장 목판은 1501년 봉서사(鳳棲寺)에서 간행한 8행18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본 목판은 서·발문 각각 2장, 본문 49장을 판각하여 총 13판이 전해지고 있다.

현존 최고본인 지리산 덕기사본(德奇寺本, 1399년)의 경우 진원(眞圓)의 서문과 처암(處巖)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지만, 보원사본을 포함한 다른 판본에는 권수에 홍교조의 서문과 주영원(朱穎遠)의 발문만이 첨부되어 전한다. 본문은 「개당보설(開堂普說)」 1편, 「시중(示衆)」이 12편, 「결제시중(結制示衆)」 2편, 「해제시중(解制示衆)」 3편 등 총 4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봉화상선요』 목판은 권수제가 있는 1장부터 ‘개당보설’이 끝나는 4장까지 유실되어 현재 서, 발문 포함 45장 13판이 전해지고 있다. 장차는 서(序) 1-2장, 발(要跋) 1-2장, 요(要) 1-49장인데 일정한 순서 없이 섞여서 판각되어 있다.

목판은 전후에 각각 2장씩 새겨 한 판에 총 4장이 판각된 형태이지만, 한 면에 1장 또는 3장이 새겨진 경우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때문에 크기가 비슷하게 재단되는 다른 판과 다르게 목판의 가로 크기가 70-90cm 내외로 다양하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장부가 보이지 않게 마감하였다. 또한, 5판은 마구리가 결손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최대 세로 21.5cm, 가로 96.0cm에 이른다.

형태적 사항을 살펴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최대 세로 17.7cm, 가로 26.0cm이다.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에 상하대흑구를 양각하였다. 서와 발은 반곽 8행 16자이고, 본문은 8행18자로 동일하다. 판심제는 ‘要序’, ‘要跋’, ‘要’이며, 하단 어미위에 장차가 순서대로 나온다.

‘高峰禪要終’의 권미제 옆으로 시주질과 개판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비구 혜선(惠禪)이 시주 겸 공덕주를 맡아 1571년(隆慶 5) 3월 보원사에서 개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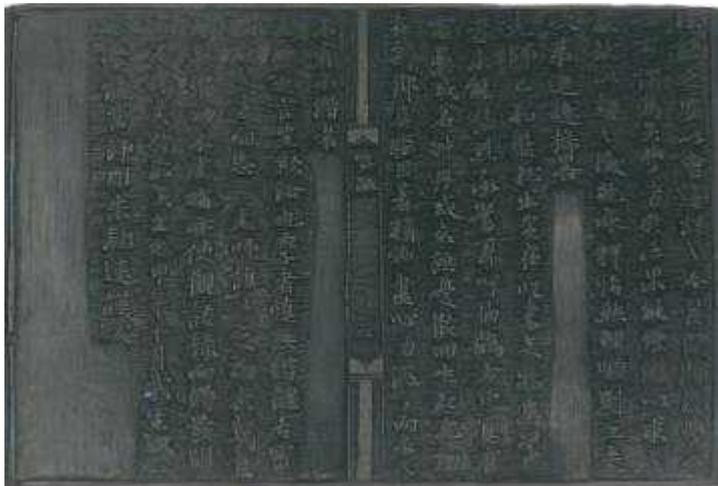
목판은 흙으로 인한 오염과 함께 곰팡이, 흰개미 등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의 판에서는 마구리가 결손되고 판면의 균열이 심한 목판도 확인되어 정밀한 소제작업과 함께 마구리 및 목판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 1] 고봉화상선요 서_ 2 · 1장



[도 2] 고봉화상선요 _ 49장



[도 2-2] 고봉화상선요 발 _ 2장

11.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

가. 검토사항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6판 (完)
- 규 격 : 광곽 18.9×28.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제작자 : [鍊板 兼 刻手] 妙淳 / [刻手] 廣惠, 妙淳, 戒禪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충청도 서산의 가야산 개심사에서 판각된 것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한다. 그 중에서 개심사에서 간행한 이 목판은 6판(23장)으로 완전하게 전한다. 목판은 흙으로 인해 오염된 것이 다수이며, 일부 목판은 충해와 균열 등으로 글자까지 훼손되어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497년	전라 진안 현암	×	
1522년	충청 무량사	×	
1536년	지리산 신흥사	×	
1539년	안동 광흥사	×	
1541년	안변 석왕사	×	
1565년	황해도 석두사	×	
1566년	평안도 안국사	×	
1566년	전라 고산 안심사	×	
1568년	충청 쌍계사	○	공주 갑사(결판 1판)
1568년	보은 법주사	×	
★1584년	가야산 개심사	○	서산 개심사(완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蒙山和尚六道普說
저 자	蒙山(元) 著
발행사항	忠淸道 瑞山地 伽耶山 開心寺, 宣祖 17年(1584)
형태사항	匡郭 18.9×28.1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6行不定字, 上下內向混用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十二年九月日忠淸道瑞山地伽耶山開心寺新開刊

○ 소장판 목록

(1 · 2, 5 · 6) (4 · 3, 7 · 8) (9 · 10, 18 · 17) (11 · 12, 15 · 16) (13 ·

14, 20 · 19) (21 · 22, 23)

○ 구성 및 내용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은 원(元)의 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본 목판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 서산 개심사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6판이 전해지고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우리나라 선종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의 승려 몽산 덕이가 육도윤회와 사성(四聖)을 설명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육도(六道)란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 등으로 인간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을 일컫는다. 여기에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佛) 등의 사성을 더해 십계(十界)를 설하고 있다.

○ 조사내용

개심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새겨진 형태로 총 6판23장이 전하고 있다. 권수제는 ‘蒙山和尚六道普說’이며, 마지막 23장에는 간기와 시주질 등이 새겨져 있다.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였기 때문에 가로로 긴 형태로 세로 20.0cm, 가로 72.9cm에 이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지 않게 결구한 형태이며, 일부의 목판은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또한 마구리와 장부를 나무못으로 고정하고, 더불어 마구리 상·하단부에 철로 된 장석을 이용하여 목판과 마구리를 고정하고 있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9cm, 가로 28.1cm이다. 반곽은 6행이며, 1행의 자수는 13-15자로 일정하지 않다. 판심부의 어미는 흑어미와 화문어미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흑구는 없으며, 판심제 없이 하단에 장차를 새겼다.

마지막 장의 개판기록을 통해 본 목판은 1584년(萬曆 12) 충청도(忠淸道) 서산(瑞山) 가야산(伽耶山) 개심사에서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하는데, 진안 용출사 현암본(1497) 계통의 해서체 13자본이 가장 많으며, 개심사본은 행서체의 15자본인 일월사본(1432), 자비령사본(1490), 대광사본(1509)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개심사본에는 광혜(廣惠), 묘순(妙淳), 계선(戒禪) 등이 연판 겸 각수자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광혜는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7)에도 각수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목판은 흙으로 인해 오염된 판이 다수이며, 일부 판에서는 충해 및 균열 등으로 글자면까지 훼손되고, 마구리가 유실된 목판이 많아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몽산화상육도보설 _ 1·2장



[도 2] 몽산화상육도보설 _ 23장 간기

12.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가. 검토사항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26판 (缺)
- 규 격 : 광곽 20.3×3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77년(선조 10)
- 제작자 : [刻字] 道明, 廣惠, 信峯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577년(선조 10)에 충청도 서산의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현재 개심사에는 26판(55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원래의 목

재 모양을 목판에 그대로 이용한 탓에 U자형, V자형 등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개심사에서 간행한 목판의 한 특징이다. 흙으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다수의 목판이 곰팡이 등의 충해와 균열이 확인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66	평안도 안국사	×	
1576	안동 광흥사	×	
★1577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32	수청산 용복사	×	
1647	순천 송광사	○	송광사(완판)
1662	보성 개흥사	×	
1670	계룡산 갑사	×	
1680	묘향산 보현사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저 자	大愚(朝鮮) 集述
발행사항	忠清道 瑞山地 伽耶山 普願寺, 宣祖 10年(1577)
형태사항	匡郭 20.3×35.4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五年丁丑季夏六月日忠清道瑞山地伽耶山普願寺留鎮 版心題 : 豫修文, 豫修疏, 豫修通, 緘, 緘受

○ 소장판 목록

- 豫修通 : (1, 豫修文-11) (2, 豫修文-18)
 豫修文 : (1, 2) (3, ×) (4, 31) (5 · 37, 16 · 15) (6 · 12, 7 · 8) (9, 10) (19 · 13, 17) (14, ×) (20, 29) (21, 27) (22, 23) (24 · 28, ×) (25, 30) (26, 38) (32, ×) (33, 34) (35, 36) (39, ×) (40, 豫修疏-3) (41, ×) (42, ×)
 豫修疏 : (1 · 4, 緘-6 · 緘-5) (2, 7)
 壽生經 : (10 · 8, 9 · 11)

※ 2판 7장 결 : [수생경] 1, 2, 3, 4, 5, 6, 7

○ 구성 및 내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의식인 예수재(豫修齋)에 대한 의식집이다. 편찬자인 송당 대우(松堂大愚)의 생몰년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16세기 간본이 전하고 있어 그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목판은 1577년(萬曆 5) 충청도(忠淸道) 서산지(瑞山地) 가야산(伽耶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판본을 보면 여러 의식문들이 합철되어 있어 체제는 판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수천왕통의(豫修薦王通儀)」를 시작으로 「예수문(豫修文)」이 이어지며, 본문인 「예수문」은 통서인유편(通敘因由篇),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등 총 31편으로 구성되고, 각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소청사자소(召請使者疏)」, 「수설명사승회함합소(修說冥司勝會咸合疏)」,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으로 연결된다.

○ 조사내용

개심사 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여러 가지 의식문을 합철하여 새긴 것으로 본문 42장과 「예수천왕통의」, 「소청사자소」 등과 함께 총 26판에 55장이 전해진다. 구성과 행자수가 동일한 안동 광흥사간본(1576년)과 비교해 보면 「예수문」 31장이 유실되었으며, 42장에 시주질을 비롯한 간행 기록을 새기고 있다.

목판은 판목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목을 재단하지 않고, U자형, V자형, 계단형 등으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판재의 형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판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 판에 전후로 2장 내지 4장을 새긴 것이 대부분이나 1장이나 3장을 판각한 경우도 있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는 형태로 결구하였는데, 대부분의 마구리가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각 목판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대 세로 27.7cm, 가로 81.4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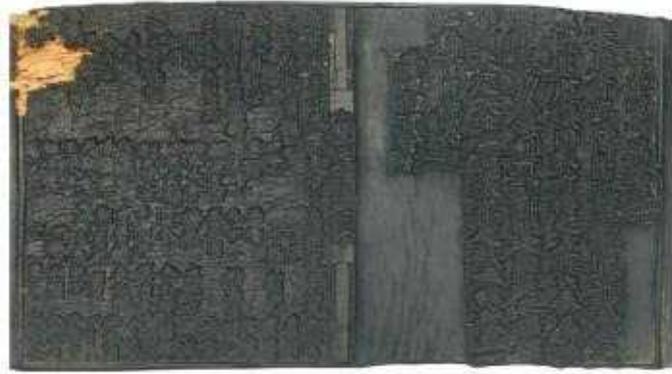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0.3cm, 가로 35.4cm이다. 반곽에 행자수는 8행16자이고, 「예수천왕통의」 등의 의식문은 11행19자이다. 판심부는 상하내향 흑어미에 상하대흑구이고, 판심제는 ‘豫修通’, ‘豫修文’, ‘豫修疏’, ‘咸’, ‘受’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져 있다.

「예수문」 42장에 새겨진 간행 기록을 통해 본 목판은 1577년(萬曆 5)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개판에 참여한 ‘大施主 朴允石’ 등 시주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아래로 ‘道明’, ‘廣惠’, ‘信峯’ 등의 각수의 이름이 이어진다.

목판은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크고, 대부분 마구리가 유실되어 보존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흙으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다수의 목판이 곰팡이 등의 충해와 균열이 확인되어 마구리와 함께 보수가 필요하다.



[도 1]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豫修文 _ 1·2장



[도 2]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豫修文 _ 42장



[도 3]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佛說壽生經_ 8장

13. 제반문 목판(諸般文 木板)

가. 검토사항

‘제반문 목판(諸般文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제반문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제반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26판 (缺)
- 규 격 : 광곽 21.0×35.6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6년(명종 21)
- 제작자 : [鍊板] 元甘 / [刻手] 惠先, 道眞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목판의 보존상태가 최하등급임.

<제반문>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

간행년	간행지	현존 여부	비고
☆1566	가야산 보원사	○	서산 개심사(1판 결판)
1658.7	회양산 봉암사	×	
1658.7	주화산 위봉사	○	동국대학교 박물관(대략 23판 결판)
1691	외룡산 용흥사	○	경남 운흥사(완판)
1694	모악산 금산사	×	
1719	가야산 해인사	○	합천 해인사(완판)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관 명	諸般文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伽倻山 普願寺, 明宗 21年(1566)
형태사항	匡郭 21.0×35.6cm 四周單邊, 無界, 半葉 8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嘉靖四十五年丙寅三月日伽倻山普願寺開板 版心題 : 文, 請文, 削, 七, 七星, 念佛, 佛, 供養

○ 소장관 목록

文 : (2 · 1, 圖 · 58) (3 · 4, 6 · 5) (7 · 8, 9 · 10) (12 · 11, 13 · 14)
 (15 · 17, 16 · 18) (19 · 20, 22 · 21) (23 · 26, 24 · 25) (27, 28) (29 ·
 32, 31 · 30) (33 · 34, 35 · 36) (37 · 38, 39 · 40) (43 · 42, 45 · 44) (46 ·
 47, 49 · 48) (50 · 53, 51 · 52) (57 · 54, 55 · 56) (58 · 61, 59 · 60) (65 ·
 62, 63 · 64) (66 · 67, 69 · 68) (70 · 71, 73 · 72) (74 · 75, 77 · 76)
 供養文 : (1, 2) (5, 6) (8 · 7, 11) (12, ×) (14 · 13, ×) (15 · 9, 10 · 16)

※ 1판 3장 결 : [문] 41 / [공양문] 3, 4

○ 구성 및 내용

『제반문(諸般文)』은 사찰에서 많이 행하는 각종 의식과 절차를 집대성한 불교의식집이다. 주요 내용은 상단(上壇)과 신중단(神衆壇) 앞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식용 진언이 수록되며,

대웅전을 포함한 각 전각에서 행하는 예불·공양 등 다양한 의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판본은 약 10여종이 확인되며, 서산 개심사에 소장된 『제반문』은 1566년(嘉靖 45) 3월 가야산(伽倻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총 26판이 전해진다.

『제반문』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식 가운데 진언·청문에 관한 모든 의식을 집대성하였기 때문에 판본에 따라 수록된 청문과 진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심사 소장 목판은 각 청문의 명칭을 제시하고, 이어서 세부적인 진언의 내용과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개심사판에 수록된 청문은 「제반문(諸般文)」, 「시왕청문(十王請文)」, 「약예왕청문(略禮王請文)」, 「나한청문(羅漢請文)」, 「사자청(使者請)」, 「관음청(觀音請)」, 「가사청문(袈裟請文)」, 「제석청문(帝釋請文)」, 「제불보살청(諸佛菩薩請)」, 「시식문(施食文)」, 「조사공양문(祖師供養文)」, 「점안문(點眼文)」, 「시왕점안문(十王點眼文)」, 「삭발문(削髮文)」, 「다비작법(茶毗作法)」, 「북두칠성공양문(北斗七星供養文)」, 「염불작법(念佛作法)」, 「공양문(供養文)」이 확인된다. 각 청문과 세부 진언이 바뀔 때마다 제목을 2단 정도 내려서 표기하여 제목과 내용을 구분하였다. 한편, 1장부터 77장까지 이루어진 청문의 내용 끝에 1-14장의 「공양문」이 덧붙여져 있다.

○ 조사내용

개심사에 소장된 『제반문』은 「시왕청문」 등 각종 청문이 1-62장, 「북두칠성공양문」이 63~69장, 「염불작법」이 70-77장, 「공양문」이 1-16장으로 나뉘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6판에 새겨져 있다.

목판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판면에 각각 2장씩 총 4장을 새기거나 전면 2장, 후면에 1장을 새겼으며, 전·후면에 1장씩 또는 후면에 판각이 없는 판도 확인된다. 또한 하나의 판면 좌우에 판각방향이 서로 다르게 새겨지거나, 장차의 순서가 연결되지 않고 혼재된 모습도 있다. 좌·우측 마구리는 장부가 마구리 측면을 관통하지 않은 형태가 대부분이며, 12판은 한쪽 또는 양쪽의 마구리가 결손되어 있다. 대부분의 목판 마구리 측면에는 ‘諸文卅三四卅五六’ 등 선각으로 제명과 장차를 새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목판의 전체크기는 최대 세로 22.7cm, 가로 88.7cm 정도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며, 크기는 세로 21.0cm, 가로 35.6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8행15자에 주쌍행이며, 판심부의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에 상하대흑구이다. 판심체는 각 청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장부터 62장까지는 ‘請文’ 또는 ‘文’이며, 「북두칠성공양문」은 ‘七星’과 ‘七’, 「염불작법」은 ‘念佛’과 ‘佛’, 「삭발문」은 ‘削’, 「공양문」은 ‘供養’으로 그 약명을 새기고 있다.

목판의 62장에 새겨진 ‘嘉靖四十五年丙寅三月日伽倻山普願寺開板’의 간행 기록을 통해 1566년(嘉靖 45) 3월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되었음이 확인되며, 이후 50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시주자들의 명단에 이어서 연판과 각수 등 판각 관련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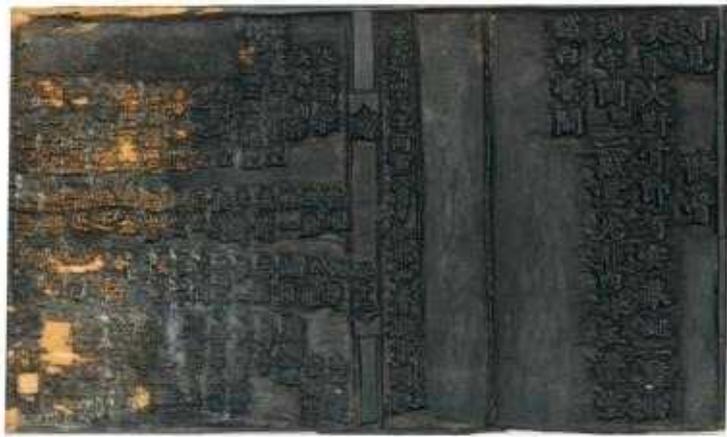
다수의 목판에서 충해와 균열, 마모로 인한 판면의 글자 손상과 흙으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며, 일부 판에서는 마구리가 유실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제반문 _ 2 · 1장



[도 2] 제반문 _ 65 · 62장



[도 3] 제반문 _ 62장 간기 확대

14.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木板)

가. 검토사항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5판 (完)
- 규 격 : 광곽 15.7×22.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21년(광해 13)
- 제작자 : [刻手] 敬崧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621년(광해군 13)에 충청도 덕산의 상왕산 가야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현재 개심사에는 목판 5판(19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흙으로 인한

일부 오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현황

간행시기	간행지	현존여부	비고
1560	肅川府 館北	×	언해본
1568	순창 취암사	×	
★1621	상왕산 가야사	○	서산 개심사(완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저 자	[著者 未詳]
발행사항	淸洪道 德山地 象王山 伽倻寺, 光海 13年(1621)
형태사항	匡郭 15.7×22.1cm 四周單邊, 有界, 半葉 7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刊記 : 天啓元年辛酉三月日淸洪道德山地象王山伽倻寺開板 版心題 : 六字經

○ 소장판 목록

(參禪圖, 六字經-16 · 梅竹軒志) (1 · 9, 4 · 2) (6 · 3, 7 · 5) (10 · 8, 12 · 11) (13 · 14, 15 · 眞言)

○ 구성 및 내용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은 육자진언(六字眞言)에 의해서 선정을 닦는 행법(行法)과 공덕을 설하고 있는 책으로, 줄여서 『육자신주(六字神呪)』, 『육자주(六字呪)』라고도 부른다. 본 목판은 1621년(天啓 元年) 충청도(당시 淸洪道) 덕산(德山) 상왕산(象王山) 가야사(伽倻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총 5판이 소장되어 있다.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은 관음보살을 부르는 주문 6자만 암송하면 온갖 과업을 끊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편자(編者) 및 성립시기 등은 미상이나 중국에서 원(元)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재를 살펴보면, 크게 「참선도(參禪圖)」와 「매죽헌(梅竹軒)」의 간행기 그리고 본문과 개관기로 구성된다. 「매죽헌(梅竹軒)」은 불가의 선정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근본이라 하여 편찬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은 선정에 처음 들었을 때 주의할 점을 밝힌 초입선정(初入禪芝)을 시작으로 심신청정(心身淸淨), 삼보공양(三寶供養), 염송진언(念誦眞言), 관상육자관음상(觀想六字觀音相), 관념육자공덕상(觀念六字功德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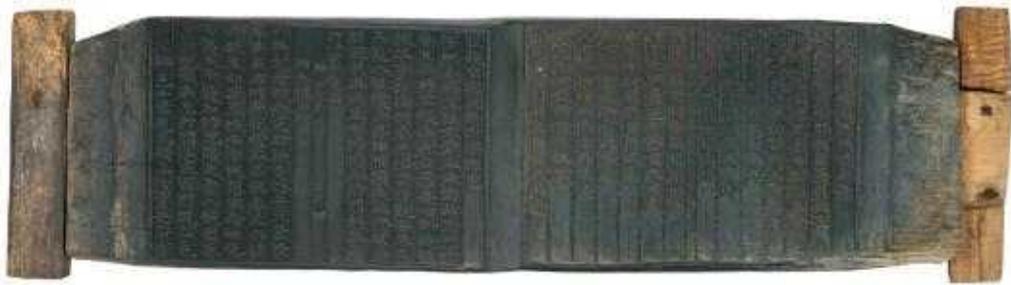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은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여 1권에 모두 4장이 새겨진 형태로 총 5권에 19장이 새겨져 있다.

목판은 각 면에 2장씩 새겨졌기 때문에 좌우로 길어진 직사각형 형태이며, 크기는 최대 세로 16.9cm, 가로 60.3cm에 이른다. 마구리는 따로 제작하여 장부가 보이도록 홈을 파서 결구하였다.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5.7cm, 가로 22.1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7행15자이고, 판심부는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의 형태에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판심제는 ‘六字經’ 또는 ‘六字’이며, 그 아래로 장차를 새겼다.

마지막 16장에 새겨진 간기를 통해 본 목판이 1621년(天啓 元年) 충청도 덕산지 상왕산 가야사에서 개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여러 경전을 판각한 공덕으로 모든 육도 중생이 정토왕생하여 부처의 설법을 듣기를 바라는 발원문(願我以諸經刻板功德 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 同歸淨土同見彌陀 同聞正法同化衆生)과 함께 목판이 판각된 시기와 판각처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불사를 시주한 김국남(金國男) 등 6명의 속인과 판각을 담당한 각수 경은(敬崧) 등이 확인된다.

목판은 흙으로 인한 일부 오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도 1]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1·9장



[도 2]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참선도



[도 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_ 16장 간기

15.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가. 검토사항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안 수행한 결과물 중 서산 개심사 ‘오대진언 목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오대진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9판 (完)
- 규 격 : 광곽 17.5×2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04년(선조 37)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판은 1604년(선조 37)에 가야산 강당사(講堂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오대진언은 1485년(성종 16)에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

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어 범자(梵字)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달아 처음 간행되었다. 그래서 범자와 한글의 용법 연구에 자료가 된다. 개심사 소장의 이 목판은 판심제가 「五大」인 것으로 보아 오대진언 중에서 수구즉득다라니만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심사에는 9판(28장)이 완전하게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은 마구리의 결손과 충해로 인한 훼손이 있다.

<오대진언(수구즉득다라니)> 간행과 목판 현존현황²⁾

간행년	명칭(간행범위)	간행지	현존 여부	비고
[1485]	오대진언		×	학조 발문
1531	오대진언	지리산 철굴	×	
1534	오대진언	묘향산 도솔암	×	
1535	오대진언	황해도 심원사	×	
1550	오대진언	풍기 철암	×	
★1604	오대진언 (수구즉득다라니)	가야산 강당사	○	서산 개심사(완판)
1634	오대진언	불명산 쌍계사	○	합천 해인사(완판) 2판(4장)은 후대보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상세정보

목 판 명	五大眞言
저 자	不空(唐) 譯
발행사항	瑞山地 伽耶山 講堂寺, 宣祖 37年(1604)
형태사항	匡郭 17.5×25.4cm 四周雙邊, 有界, 半葉 9行15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주기사항	刊記 : 萬曆三十二年甲辰十二月瑞山地伽耶山講堂寺開刊 版心題 : 五大

2)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이응백외, 한국사전연구사, 1998)에서는 오대진언수구경(五大眞言隨求經)으로 되어 있음.

○ 소장판 목록

(1, 施主秩) (2 · 1, ×) (4 · 3, 6 · 5) (7 · 8, 9 · 10) (11 · 16, 12 · 15)
(13,14) (18 · 17, 19 · 20) (21, 22 · 23) (24, 26 · 25)

○ 구성 및 내용

『오대진언(五大眞言)』은 인수대비(1437-1504)의 명으로 1485년(成化 21) 학조(學祖, 생몰년 미상)가 당시 가장 많이 신앙되고 독송되었던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어 범자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단 책이다. 본 목판은 그 가운데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부분만을 떼어내어 개관한 것으로 현재 9판이 개심사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진언』은 불교의 다섯 가지 진언을 모은 경전으로 이 판은 범자를 쓰고 그것을 음역한 한자 ·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다섯 가지 진언은 수록 순서대로 보면 「대비심대다라니(大悲心大陀羅尼)」 · 「관세음보살여의주수진언(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다. 그런데 개심사 소장 『오대진언』 목판은 그 중에서 「수구즉득다라니」만을 떼어내서 개관한 것으로, 이는 구하는 바를 즉시 얻는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다라니를 설하기 전에 그 주체인 부처님을 찬미하고, 다라니를 들을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의미의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계청(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卽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啓請)」을 시작으로 한다. 「계청」 부분은 7언의 한자구로 되어있다.

계청이 끝난 후 「불설일체여래보편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陀羅尼)」가 나오는데 범자를 먼저 쓰고 행을 바꾸어 한글과 한자를 새기는 방식으로 새겼다. 이어지는 진언은 「일체여래심인진언(一切如來心印眞言)」, 「일체여래결계진언(一切如來心眞言)」, 「일체여래심진언(一切如來心眞言)」 등 총 7개이다.

○ 조사내용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 목판은 「수구즉득다라니」 부분만을 판각한 것으로 계청과 시주질 2장, 본문 1장부터 26장까지 총 9판에 28장이 전한다.

목판은 대부분 각 면에 2장씩 새겨져 하나의 목판에 총 4장씩 판각되었는데, 일부의 판은 2장, 3장이 새겨진 판도 있다. 목판은 직사각형으로 좌우 끝에 장부를 마련하고 마구리를 따로 제작하여 결구한 형태인데, 1판을 제외하고는 마구리가 모두 유실되어 장부가 노출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최대 세로 18.8cm, 가로 66.8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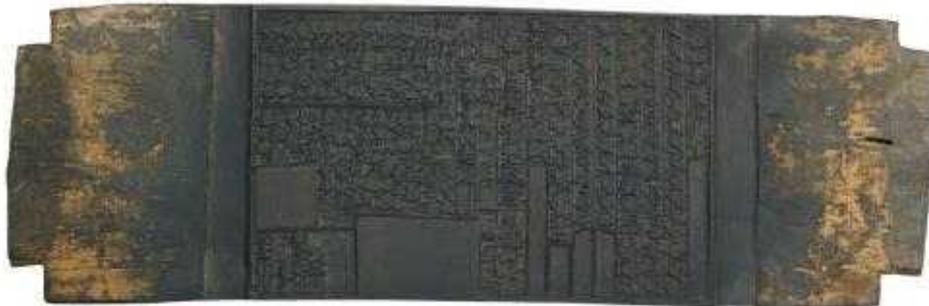
판면의 형태사항을 보면 광곽은 사주쌍변에 유계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17.5cm, 가로 25.4cm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9행15자이고, 판심부의 어미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에 흑구는 새기지 않았다. 「수구즉득다라니」만 판각하였지만 판심제는 ‘五大’로 본래 『오대진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간기판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본 목판은 1604년(萬曆 32) 가야산(伽耶山) 강당사(講堂寺)에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19년(萬曆 47)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서산군 읍지 성격의 『호산록(湖山錄)』에 보원사가 강당사로 불린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강당사는 보원사의 다른 이름인 것이 확인된다.

목판은 1판을 제외하고 마구리가 결손되어 마구리의 보완이 필요하며, 충해로 인한 목판 훼손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존처리도 필요한 상태이다.



[도 1] 오대진언 _ 1장



[도 2] 오대진언 _ 시주질



[도 3] 오대진언 _ 시주질 확대

보고 사항

16.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개선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우리 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행정과 보존대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사적 및 건축문화재 등과 중복지정 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 제2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3항에 의거하여 개선하고자 함.

다. 보고사항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개선
 - 대상건수 : 훈민정음 등 12건(붙임1 참조)
 - 절차 : 계획 수립('17.6월)→문화재위원회 보고('17.11월)→적정성 검토('17.11월)→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18년)
- 개선 계획(안)
 - 건축문화재 등과 중복 지정된 경우 해제
 - 시·도 지정 또는 국가지정 등 별도 보호방안 강구 후 해제 검토
 - ※ 동산문화재 보호구역은 궁극적으로 해제를 원칙으로 추진

라. 향후계획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해제 추진 : 해제 공고('18년 상반기)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지자체 및 소유자 의견 결과 1부.

<붙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구역 지자체 및 소유자 의견 결과

번호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면적(m ²)	지정일	소유	비고
		주소					
1	국보 제65호	청자기린뉴개향로	서울시 성북구	15,290	'74.10.21	사유	보호구역 유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73-2 등 24건 (보화각)					
2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서울시 성북구	15,290	'74.10.21	사유	보호구역 유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73-2 등 24건 (보화각)					
3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경기도 화성시	12,724	'71.10. 8	사유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					
4	보물 제397호	남양주 봉선사 대종	경기도 남양주	1,851	'73. 9.28	국유	보호구역 해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256					
5	보물 제422호	선원사 칠조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2,417	'71.12.28	사유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2-1					
6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밀양시	2,439	'73. 9.28	사유	
		경남 밀양시 영남루1길 16-11, 무봉사					
7	보물 제513호	영천 선원동 칠불좌상	경북 영천시	2,116	'71.10. 8	사유 국(도)유	보호구역 축소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766 등 7건					
8	보물 제514호	은혜사 운부암 청동보살좌상	경북 영천시	7,471	'79.11.21	사유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56 등 3건					
9	보물 제980호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경기도 화성시	462	'94.11.23	사유	
		경기 화성시 북양동 642번지					
10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충남 청양군	3,369	'94.11.23	사유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 111-5, 111-6					
11	보물 제966-1호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8,505	'89.04.10	사유	보호구역 해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번지 비로사					
12	보물 제966-2호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나자불좌상	경북 영주시	8,505	'89.04.10	사유	보호구역 해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번지 비로사					